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 학위논문

셰익스피어의 ‘경건한’ 군주들

- 「헨리 5세」와 「헨리 6세」 -

2015년 7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문학전공

권 동 욱

국문초록

종교개혁 이후 영국의 군주는 국가와 교회의 수장을 동시에 겸하는 ‘참된 신앙의 수호자’로서 왕국의 정치적 안전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안녕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에 따라 기독교 군주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담론은 왕실 및 종교개혁에 가담했던 인문주의자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생산되고 유통되었다. 셰익스피어는 튜더 시기 이상적인 기독교 군주로 이념화되었던 헨리 5세와 헨리 6세를 다룬 역사극을 통하여 기독교 군주의 정치적 권위와 종교적 권위가 합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점검한다. 『헨리 5세』에서 셰익스피어는 하나님의 전사로서 경건함과 뛰어난 정치적 수완을 동시에 갖춘 헨리가 성공적인 군주로 발돋움하는 양상을 재현함과 동시에 기독교 군주로서 헨리의 권위가 지닌 한계도 함께 그려낸다. 신의 대리자로서 헨리는 그의 종교적, 정치적 권위를 이용해 백성들의 복종을 이끌어내고 그들을 전쟁에 동원하려 하지만, 그가 일으킨 전쟁의 불분명한 도덕적 명분은 오히려 그의 통치가 신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불러 일으킨다. 주권자로서 헨리는 신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으며 지상의 어떤 권위나 주체도 군주의 행위를 심판할 수 없다는 점을 내세워 자신의 권위를 정당화하나 기독교 군주의 도덕적 책임을 놓고 그가 백성들과 벌이는 논쟁은 헨리 또한 한 명의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환기시킨다. 한편 셰익스피어의 『헨리 6세』는 사적 이익을 무분별하게 추구하는 귀족들이 만들어내는 무질서 속에서 헨리 6세가 죽음을 통해 도덕적 질서의 붕괴를 고발하고 순교자-왕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추적한다. 그는 주권자로서 성공적인 통치를 통해 정치적 권위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시름하는 영국의 고통을 스스로 짊어짐으로써 국가와 동일시되고 나아가 순교자적인 죽음을 통해 기독교 군주로서 권위를 획득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헨리 6세는 정치적 권위를 상실하고 랭카스터 왕조의 맥을

끊어버린다는 점에서 군주의 도덕적 권위가 정치적 권위로 곧바로 치환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보여준다. 왕국의 정치적 수장이자 정신적 수호자를 겸하는 기독교 군주의 이념에 대한 탐구는 셰익스피어의 후기 작품에서도 이어진다. 제임스 1세 시기 작품인 『자에는 자로』에서 그는 국가의 통치자가 종교적 권위를 발판 삼아 개인의 영혼을 지배하는 것이 백성 각자 및 공동체의 차원에서 적절한 것인지를 따진다. 셰익스피어의 역사극은 17세기까지도 이어질 영국 왕정의 이념적 위기를 예고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요어: 셰익스피어, 『헨리 5세』, 『헨리 6세』, 종교개혁, 기독교 군주, 왕권 신수설, 튜더 왕정

학번: 2013-20015

목 차

국문초록	i
1. 서론	1
2. “맞이해야 할 무거운 청산”(A Heavy Reckoning to Make): 『헨리 5 세』와 기독교 군주의 책임	14
3. “그의 경건함이 어울리는 자리”(A State Fit for His Holiness): 순교자-왕으로서 헨리 6 세	30
4. 결론	61
인 용 문 헌	63
Abstract	68

1. 서론

본 논문은 셰익스피어의 『헨리 5세』와 『헨리 6세』 삼부작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튜더(Tudor) 시대 왕권 개념을 지탱했던 기독교 군주의 상이 가지는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의 종교개혁 이후 군주는 국가와 교회의 수장을 동시에 자임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통치의 적법성(legitimacy) 또한 그가 신의 대리자(God's vicar)로서 어떠한 태도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 셰익스피어는 『헨리 5세』를 통해 방탕한 왕자 시절을 벗어나서 정치적 수완과 경건함을 모두 갖춘 헨리 5세를 보여줌으로써 모범적인 기독교 군주의 상을 재현하면서도 동시에 그가 표방하는 왕권이 직면하는 도덕적인 딜레마를 부각한다. 한편 그는 『헨리 6세』 삼부작에서 백년 전쟁과 장미 전쟁의 혼란기에 영국을 다스렸던 헨리 6세가 정치적 실패 속에서도 순교자적 죽음을 맞이함을 통해 참된 기독교 군주의 권위를 획득하는 과정을 그리면서 정치와 종교가 맺는 복잡한 관계를 노출한다. 이처럼 튜더 시기 군주들에 의해서 경건한 선조들로 칭송된 헨리 5세와 6세 부자가 표방하는 경건함(piety)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통해 구성되고 해부되는 방식을 추적하는 것은 16세기 후반 튜더 왕조가 왕권의 권위를 만들어나가는 방식에 대해 셰익스피어가 가지고 있었던 관심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튜더 시기 왕정의 성격은 영국의 종교개혁이 만들어 낸 정신적 지형의 맥락 속에서 점검되어야 한다. 1527년 왕비 캐서린(Catherine)과의 이혼 문제로 촉발된 헨리 8세(Henry VIII)와 교황 사이의 갈등은 이내 지상권에 관한 양측의 투쟁으로 비화되었다. 이 두 세력의 다툼에 대한 가이(Guy)의 설명에 따르면, 이들의 갈등은 “중세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왕권과 사법권에 관한 문제들”(issues of regality and jurisdiction inherited from the Middle Ages)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교황은 ‘기독의 대리자’(vicar of Christ)로서 세속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교회의 자유를 옹호했고 그의 도덕적 권위를 발판으로 하여 세속적 문제에 개입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Guy 30). 반대로 국왕의 권리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영토에 대한 지배권(dominion)이 세속적 문제에 관한 입법권(legislation)에 선행한다는 점을 내세워 이러한 지배권을 소유하지 못한 교황의 정치적 개입을 부정하고자 하였다. 즉 왕권은 “왕국의 지역적 자치와 영토의 독립성의 맥락에서”(in terms of the provincial autonomy and territorial independence of the kingdom) 정의되었던 것이다(31). 세속적 문제들에 대해 왕권이 지니는 우위를 주장하는 논리들은 위와 같은 법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교리 차원에서 비롯되기도 하였다. 가이는 그 예시로 턴덜(William Tyndale)의 논의를 내세우는데, 그는 신성한 법률로서 성경은 교회에 우선하고 또한 국왕은 신에 의해 임명되었다는 점을 주장한다. 왕이 성경에 근거한 통치를 펼침으로써 교회의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는 턴덜의 논리는 구교의 권위로부터 독립을 꾀하는 헨리 8세의 입장과 맞아떨어졌다(33).

이처럼 법적, 종교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교황과 국왕 사이의 권리 다툼은 결국 1533년 청원령(The Act of Appeals)과 1534년 수장령(The Act of Supremacy)을 통해 영국이 교회의 수장직을 동시에 겸하는 국왕에 의해 통치된다는 선언을 낳게 된다.

영국은 제국이며 . . . 제왕의 신분과 위엄을 지니는 유일하고 지고한 군주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다. 성직자와 속인 등으로 나뉘어서 모든 계층과 지위에 속한 자들로 구성된 정체는 하나님 바로 다음으로 군주에게 지당하고 겸허한 복종을 바칠 의무가 있다.

this realm of England is an empire . . . governed by one supreme head and king having the dignity and royal estate of the imperial crown of the same, unto whom a body politic, compact of all sorts and

degrees of people divided in terms and by names of spirituality and temporality, be bounden and owe to bear next to God a natural and humble obedience. (From “the Act of Appeals,” Elton, *The Tudor Constitution* 353)

청원금지법령은 영국의 군주가 통치에 관한 가장 높고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분명히 한다. 따라서 이제까지 교회법에 의거해 로마 교황청으로 전달되었던 청원은 불법적 행위가 되었고, 대신 국왕의 권위를 표상하는 영국의 법정이 이를 대신하게 되었다. 수장령은 “주권자인 국왕과 그의 후계자 및 계승자들은 영국 교회의 지상 유일한 최고 수장으로 간주되고 받아들여질 것”(The King our sovereign lord, his heirs and successors kings of this realm, shall be taken, accepted and reputed the only supreme head in earth of the Church of England; Elton, *The Tudor Constitution* 364)이라는 선언을 통해 이제까지 세계 교회의 수장으로서 교황이 유럽의 국가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정치적, 정신적 권위를 함께 부정하고 그러한 권위가 헨리 8세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다.

맥케나(McKenna)에 따르면 헨리의 지상권 확보는 단순히 10여 년에 걸친 그의 개인적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중세 시기부터 200년 넘게 진행된 “영국의 주권적 열망”(England’s sovereign aspirations; McKenna, “How God Became an English Man” 41)이 실현된 결과물이었다. 에드워드 3세(Edward III)가 프랑스의 지배권을 주장하고 프랑스 왕이 주장했던 세속적 자율권을 영국의 왕권에 이식시키려 시도한 때부터 영국이 스스로 지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프로젝트는 시작된 셈이기 때문이다(27). 그렇지만 헨리가 모든 외부적 권위를 부정하고 스스로 국가와 교회의 우두머리를 자처하였을 때 이는 중세의 왕들이 내세웠던 왕권의 우위와는 차이를 가진다. 왜냐하면 선대 국왕들은 교권에 대비하여 왕권의 상징적 우위를 주장하면서도 교황이 정점에 존재하는 구교 체계의 기독교계(Christendom)로부터 독립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헨리 8

세는 교황이 베드로(Peter)로부터 계승한 도덕적, 정치적 권위를 부정하고 스스로를 신의 대리자로 표상함으로써 이전까지 교황이 소유했던 권위를 영국에서 독점한다는 입장을 펼쳤다(Elton 200-1). 즉 헨리가 영국의 왕권에 집중시킨 정치적, 도덕적 권위는 이전의 군주들이 가졌던 권위에 비교해 범위와 영향력의 측면에서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거짓된’ 신앙으로 영국을 오염시키려는 교황과 그의 무리들에 맞서서 ‘참된 신앙의 수호자’(the defender of faith) 역할을 자임하게 된 영국의 군주는 왕국의 정치적 안전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안정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이러한 군주상은 헨리 8세 이후 셰익스피어 당대의 엘리자베스(Elizabeth) 여왕으로도 이어졌고, 영국 프로테스탄트 진영의 작가들의 선전전을 통해 신의 대리자로서 완벽한 양심을 지닌 지상의 군주가 올바른 통치를 통해 영국을 이상적인 프로테스탄트 국가로 만들 것이라는 견해는 더욱 왕성하게 분출되었다(이종숙, 「종교개혁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르네상스 연극」 71-86).

종교개혁을 촉발시킨 장본인인 헨리 8세가 ‘참된 신앙의 수호자’로서 자신을 지칭할 때 그의 왕권이 모델로 삼은 것은 구약의 군주들, 특히 다윗(David)이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양떼들을 돌볼 의무를 지니고, 성직자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짓된 신앙을 가진 세력과 맞서 싸우는 존재가 헨리 8세가 표방하던 기독교 군주의 상이었던 것이다(Scarisbrick 388). 또한 그는 콘스탄틴(Constantine) 대제 또한 모범으로 삼았는데, 초기 기독교의 황제였던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로 제정하면서 세속적 문제와 더불어 영적인 문제에 관해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역사를 모방하고자 했던 것이다(388). 이 두 역사적 사례들을 예시로 들면서 지상권을 주장한 헨리 8세가 표방했던 왕권이 지니는 권한과 의무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왕은 신으로부터 직접 백성들의 영혼을 돌볼 의무를 부과받았고, 국교회의 성직자들을 총괄하는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따라서 교황에 대한 어떠한 복종의 의무로부터도 면제

되는 것이다(287-8). 왕실의 주도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여 보급하고, 군주가 책과 칼을 동시에 들고 있는 초상을 번역 성경의 표지에 삽입하는 것 등은 헨리 8세가 교회와 국가의 수장으로서 백성의 정신적 안녕을 돌보는 것에 대해 가졌던 각별한 관심을 알려준다(Scarisbrick 254; King 104).

종교개혁 시기 영국의 역사가 기독교 군주의 상을 재정립한 것과 발맞추어서 인문주의 담론에서도 기독교 군주의 역할과 이상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스킨너(Quentin Skinner)에 따르면, 16세기 알프스 이복의 인문주의자들은 군주가 지녀야 할 덕목 중에서 경건함을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꼽았다(Skinner 231). 그들 중 에라스무스(Erasmus)가 쓴 『기독교 군주의 교육』(*The Education of a Christian Prince*)은 큰 영향력을 지녔다. 이 책은 1516년에 후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될 스페인의 카를로스(Carlos)를 위해 집필되었고, 이듬해인 1517년 헨리 8세에게도 헌정되었다(Clough 126). 에라스무스의 논의가 본 논문에서 중요한 이유는, 그가 종교개혁 이후 영국의 군주들이 직면해야 했던 왕권 정당화의 가능성과 그 한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에라스무스에 의하면 군주의 지배력 속에는 “인간의 본성을 넘어서는 전적으로 신적인 무언가”(beyond human nature, something wholly divine; Erasmus 1)가 깃들여 있다. 군주란 “신의 닮은 꼴이자 그의 대리자”(the likeness of God and his vicar; 22)로서 지상을 통치할 권한을 위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주는 그에게 부여된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사사로운 이득을 취해서는 곤란하다. “진정한 기독교인”(a true Christian)이란 “모든 악행”(all depravity)으로부터 벗어나 “기독을 가슴 깊숙이 품고 기독의 정신으로 행동함으로써 이를 표현하는 사람”(someone who has embraced Christ in the depths of his heart and who expresses this by acting in a Christian spirit; 18)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전제 속에서 한 명의 기독교인이자 정치적 지도자로서 군주는 “흠결없는 품성과 지혜”(blameless character and wisdom; 18)를 발판으로 삼아 국가의 “공

익”(the common good; 4)과 “백성들의 행복”(the happiness of his people; 98)을 증진시키는 데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그는 법률에 의거한 통치를 말하면서도 법을 군주의 의지와는 구별되는 질서 체계로 상정하기보다는 군주와 법을 동일하게 만듦으로써—즉 군주를 “법률의 체현”(embodiment of the law; 79)으로 설명하면서—정의로운 질서를 세우는데 필요한 법률조차 군주의 지혜와 덕망 있는 품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주장한다. 또한 이처럼 완벽한 기독교적 도덕성을 갖춘 지도자로서 군주는 한시도 사사로운 욕망과 잡념의 유혹에 빠져들어서는 곤란하다.

[군주는] 모든 생각과 행동, 그리고 힘을 오직 단 하나의 목적, 즉 그에게 위임된 영토를 통치함에 있어서 심판의 날에 기독을 만족시키고 현세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명예로운 기억을 남기는 데에 쏟아 부어야 한다.

[The prince] will devote all his thoughts, all his actions, all his energies to a single purpose, that of ruling the province entrusted to him in such a way that on the day of reckoning he will satisfy Christ and will leave a most honourable memory of himself among mortals. (98)

이 구절은 에라스무스가 그리고 있는 이상적인 기독교 군주의 모습을 압축적이고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가 다스리는 백성과 마찬가지로 군주 또한 사후에 자신이 행한 일들에 대하여 신 앞에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분은 군주의 권력은 신의 뜻을 따르는 한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으며 또한 그가 경건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해준다. 이 부분에서 에라스무스는 기독교 군주의 권위가 가지는 한계를 명확히 한다. 신의 대리자로서 군주는 통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자의적일 수 없으며 만약 신의 뜻에 어긋나는 통치를 행하는 군주는 폭군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에라스무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당수의 역사적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는 전략을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그가 예시로 드는 고대의 인물은 스키피오(Scipio)이다. 군주는 과거에 스키피오가 “공무에서 벗어난 시간 동안 언제나 국가의 안전과 위엄과 관련된 사유에 몰두했다는”(whenever he was free of public business, he would always be pondering some idea concerning the security or dignity of the state) 점을 기억하고 그를 원형으로 삼아 “모방”(imitate; Erasmus 98-9)하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에라스무스가 이 부분에서 군주가 자신의 공적인 인격과 사적인 인격을 조화시켜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그는 군주의 사적 인격을 공적 인격에 맞출 것을, 혹은 심지어 사적 인격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언제나 공적인 존재로 남아야 하는 군주의 자리는 편안하거나 한가로울 수 없다. 반대로 “잠들 수 없는 밤과 업무”(sleepless nights and work)로 점철된 군주의 삶은 “염려의 삶”(a life of anxiety)일 수밖에 없다.¹ 그에게 주어진 유일한 위안은 그가 “옳은 편에 서 있다는 걸 인식”(awareness that [he is] in the right; 19)하는 것밖에는 없다.

결과적으로 에라스무스의 경건한 군주는 언제나 기독교 윤리의 수호자로서 살아야 하고 그가 내리는 정치적 판단과 도덕적 판단 사이에는 어떠한 간극도 존재할 수 없다. 그렇다면 군주 혹은 국가가 행하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여겨지는 전쟁에 관해서 에라스무스는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정치와 도덕을 분리시켜 사유하지 않는 그에게 “정의를 훼손하고”(violating justice), “수많은 이

¹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보이는 엘리엇(Thomas Elyot)의 『통치자라 이름 붙여진 책』 (*The Book Named the Governor*)에서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찾아볼 수 있다. 군주뿐만 아니라 궁정의 관료 계층까지 겨냥하여 집필된 이 저서에서 그는 “기독교인으로서 권위 있는 직위를 가진 자는”(a Christian man being in authority) 언제나 “국가의 경영에 있어서”(in the administration of a public weal) 부단히 노력하고 “주의를 기울여야”(vigilant; Elyot 96) 한다는 점을 피력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에라스무스의 군주와 마찬가지로 엘리엇이 말하는 통치자는 그가 얻을 “명예가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염려와 부담을 생각해야 한다”(shall not think how much honour [he] receive[s], but how much care and burden; 97).

들의 피흘림”(much human bloodshed)을 동반하며 “종교의 대의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는”(great damage to the cause of religion; 19) 전쟁은 정치행위의 연장이 아니라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발생을 막아야 할 가장 심각한 악이다. 군주는 “전쟁이라는 도구가 결코 필요해지지 않도록”(that the device of war may never be needed; 65) 평화로운 시기에 국가를 안전하게 유지할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게다가 기독교 신앙을 공유하는 유럽의 군주들 사이에서 전쟁은 어느 한 쪽이 승리하건 상관없이 “기독교인의 피”(Christian blood; 103)를 대가로 지불할 수밖에 없다. 모든 기독교인은 형제라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염두에 둔다면 기독교 군주들 사이에 벌어진 전쟁은 결국 형제살해의 다른 말에 불과하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해서 에라스무스는 “항구적 평화”(a perpetual peace; 97)를 위해 군주들 스스로 공동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전쟁을 통해서만 왕국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의 경우, 에라스무스의 조언은 단호하다: 정의를 지킬 수 없다면 군주는 “자리에서 물러나야”(abdicate) 하고, “상황의 현실에 복종해야”(yield to the realities of the situation; 19) 한다. 정의로운 통치를 할 수 없다면 군주는 “목걸이와 왕홀, 제왕의 겹옷”(a chain, a sceptre, robes of royal purple; 17)으로 둘러싸인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다.

『기독교 군주의 교육』에서 에라스무스가 제시하는 경건한 군주의 상은 냉혹하고 단호한 판단을 내리는 정치가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과 그에 기반한 도덕의 수호를 위해 헌신해야 하는 성자의 모습에 더욱 가깝다. 동시에 에라스무스의 논의에서는 군주라는 정치적 행위의 주체가 신 혹은 기계 따위의 초인간적이거나 혹은 비인간적인 존재가 아니라, 양심을 지니고 있고 죄의 길로 빠질 수도 있는 윤리적 인간이기도 하다는 점도 드러난다. 백성의 경우도 군주의 명령이 신의 의지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론적으로 군주보다 우월한 권위인 신의 뜻을 따라야만 한다. 다시 말해 군주가 아무리 예수의 지상 대리자를 자처한다 할지라도 그 또한 신 앞에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인간임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

이다. 군주의 ‘인간성’에서 비롯되는 권위의 한계는 16, 17세기 왕권신수설이 제기하는 핵심적 난제를 지시한다. 군주의 통치권이 신으로부터 비롯되었고 군주는 그의 행위에 있어서 오직 신에게만 책임을 진다는 왕권신수설의 옹호자들조차 다른 모든 이들과 마찬가지로 군주 또한 “신법에 종속되어 있다는”(subject to divine law; Sommerville 34)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었다. 지고한 도덕적 권위인 신의 뜻에 대한 군주의 종속은 절대왕정의 비판자들에게는 신의 뜻이란 이름으로 군주를 비판하고 극단적인 경우 폐위까지도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따라서 왕권신수설의 논리를 따라 군주의 권위를 확립하고 백성들의 복종을 보장받고자 했던 튜더 시기의 군주들은 적어도 이념적으로는 그들이 신의 정당한 대리자임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전파해야 했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상에서 신의 대리자를 자처하는 국왕의 도덕적 권위와 정당성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으며 성공적인 통치는 정치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군주가 신의 뜻과 양심에 부합하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도 판가름 날 수 있다. 프로테스탄트 성자전이라 할 수 있는 폭스(Foxe)의 저작 『순교자열전』(*The Book of Martyrs*)은 메리(Mary) 여왕 시기 처형당한 개신교도들의 행적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천주교도 언니에게 박해당하다가 신의 은총에 의해 개신교 군주로 등극하게 된 엘리자베스의 이야기를 중요하게 다룸으로써 “반천주교적인 이야기를 통해 교황제를 물리치는 데 필요한 수단으로서 왕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이종숙, 「종교개혁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르네상스 연극」 83). 즉 엘리자베스는 거짓된 로마 교회에 맞서 영국을 수호할 신적 사명을 가진 군주가 되는 것이다. 섭리에 부합하는 군주로서 엘리자베스를 재현하려는 움직임은 그녀를 구약의 군주들—특히 다윗과 솔로몬(Solomon)—과 연관지어 표상하는 시도를 통해서도 감지된다. 다윗과 솔로몬은 신권 정치적 군주의 위상을 확보하고자 한 헨리 8세를 묘사하기 위해 동원된 인물들이었고 이는 엘리자베스 치세에도 그녀를 지지하는 국교도들에 의해 그녀의 본보기이자 동일시 대상으로 사용되었다.

신에 의해 선택되었고 보호받았던 구약의 왕들을 영국의 군주로 전유하려는 시도는 “엘리자베스의 폐위를 부르짖는 구교도들에 대한 반격의 한 형태”(One form of counterattack against Catholics calling for Elizabeth’s deposition; Doran 102)였으며 또한 그녀의 정책을 비판하는 “장로교도들 및 분리파 신도들”(Presbyterians and sectarians)에 대항하여 “군주의 지상권과 국교회를 방어하기 위한”(in defense of the royal supremacy and the Elizabethan Church; 104) 수단이기도 하였다. 또한 엘리자베스 자신은 스스로에게 “신성함의 기운과 반향”(an aura and resonance of the sacred; Montrose 75)을 부여하기 위해, 도시 및 궁정에서 행차할 때 종교적 예식과 관습, 장식들—심지어는 구교적 상징과 제례의 일부까지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엘리자베스 시기에 이르러 군주의 신성한(도덕적) 권위를 높임으로써 정치적 권위 또한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은 문학과 도상(iconography) 등의 예술 및 시가 행진 따위의 일상 생활의 영역에서 전방위적으로 벌어졌다.

튜더 프로테스탄트 군주가 권위와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군주 자신의 신성화(sacralization)와 더불어서 선조 국왕들을 이상적인 군주로 치환하는 행위에서도 발견된다. 헨리 5세와 헨리 6세는 튜더 시대에 이르러 경건한 군주의 전형으로 자리잡았는데 이는 정통성이 부족한 튜더 왕조의 군주들이 두 왕을 덕망 있는 선조들로 내세우고 스스로 그들의 후계자를 자임함으로써 왕권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실시한 선전전의 결과이기도 했다. 두 군주는 각각 혼란스러운 국내 상황을 정리하고 프랑스를 물리치고 대륙으로 진출한 성공한 왕(헨리 5세)이라는 평판과 프랑스의 영토를 대부분 잃고 귀족들의 내분을 막지 못해 영국을 혼란의 수렁에 빠뜨린 실패한 왕(헨리 6세)이라는 상이한 역사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양자 모두 튜더 시대 역사가들에 의해 이상적인 군주로 이념화되었다. 맥 케나에 따르면, 랭카스터(Lancaster) 가를 누르고 에드워드 4세(Edward IV)가 왕좌를 차지한 이후부터 헨리 8세 시기에 이르기까지 지배계층과 평민계급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헨리 6세 숭배(cult)가 형성되고 유지되었다. 요크(York) 가의

지배에 반대하는 랭카스터 세력은 에드워드와 그를 이은 리처드 3세(Richard III)를 비도덕적인 군주로 자리매김하고 정통성에 타격을 입힘으로써 민중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헨리를 부당한 죽임을 당한 순교자이자 신앙심이 누구 못지 않게 강렬했던 성자로 재현했다. 이러한 행위는 평민들의 신앙심을 자극하여 헨리 숭배 현상을 만들어내게 되었다(McKenna, “Piety and Propaganda” 72). 또한 1485년 보즈워스(Bosworth) 전투에서 리처드 3세를 제압하고 튜더 왕조를 연 헨리 튜더(헨리 7세)는 찬탈을 통해 차지한 왕권의 부족한 정통성을 보완하기 위해 당시 성행했던 헨리 숭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신의 도움을 받아 폭군 리처드 3세를 단죄함으로써 리처드 2세의 폐위와 살해 이후로 영국에 내려진 하늘의 징벌을 끝내고 평화의 시대를 열었다는 섭리주의적 정당화 및 웨일스(Wales) 출신으로서 헨리 자신이 아서 왕(King Arthur)의 부활이라는 신화적 정당화는 헨리 7세가 즐겨 쓰던 수법이였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식 외에도 헨리는 랭카스터 가의 혈통을 자신이 계승했음을 주장했고, 요크 가의 엘리자베스(Elizabeth)와 혼인을 통해 요크가와 랭카스터가의 왕권을 통합 계승하는 정통성을 확보함으로써내전의 불씨를 끄고 왕조의 안위를 보장받고자 했다(Herman 221). 랭카스터의 후손을 자처하는 헨리 7세에게 헨리 6세 숭배는 자신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었다. 왜냐하면 중세 시대 이래로 왕과 귀족 사이의 권력 다툼 속에서 성자의 존재는 그가 지지한다고 여겨지는 세력의 정통성을 강화하는 데에 일조했기 때문이다(Theilmann 244). 무력 등의 물질적 영향력 이외에도 성자가 가지는 상징적 힘은 정치적 정당성을 요하는 집단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처럼 성자로서 헨리 숭배가 가지는 정치성은 집권 초기에 헨리 7세가 교황청에 공식적으로 자신의 조상에 대해 시성(canonization) 요청을 하였다는 점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또한 튜더 왕조의 적법성 강화를 위해 헨리 7세가 적극 장려한 헨리 6세의 성자화는 동시에 그의 아버지 헨리 5세가 행했던 영광스러운 통치를 전유하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특

히 헨리 8세는 프랑스와 전쟁을 벌이기에 앞서서 헨리 5세의 전기를 영어로 번역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그의 선조가 프랑스와 벌인 전쟁의 기독교적 가치를 숭상하고 그의 명예로운 행적을 모방하고자 하였다(Woolf 23). 즉 튜더 왕조는 랭카스터 가의 두 군주를 이상화함으로써 그들이 각각 표방했던 특출난 도덕적 권위와 정치적 성공을 이어받았음을 주장하고 그것들을 다시 재현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려 했던 것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헨리 5 세』와 『헨리 6 세』 삼부작은 이처럼 튜더 왕조가 내세웠던 기독교 왕권의 적법성 확보의 맥락에서 각별한 관심을 요한다. 작품들이 그리고 있는 군주들은 각자가 속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기독교 군주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셰익스피어는 『헨리 5 세』에서 하나님의 전사(God's warrior)로서 헨리 5 세가 거둔 눈부신 성공의 원인으로 그의 경건함과 뛰어난 정치적 수완의 결합을 꼽고 있다. 그러나 헨리 5 세가 표방하는 주권자로서의 통치권은 그의 결정이 신의 뜻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심에 의해 공격받는다. 신 앞에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인간으로서 헨리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고 이는 그가 국민국가의 주권자로 발돋움하려는 노력에 대한 가장 큰 도전으로 드러난다. 이와 비교해서 셰익스피어는 『헨리 6 세』 연작을 통해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군주가 도덕적 권위를 획득하는 과정을 극화한다. 귀족들의 무분별한 사적 이익 추구하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무질서 속에서 헨리는 실질적 통치권을 상실한 실패한 군주가 되지만, 순교자적 죽음을 통해 도덕적 질서의 붕괴를 고발하고 성자로 거듭나면서 비로소 적법성을 획득하는 기독교 군주가 된다. 그러나 헨리 6 세는 기독교 군주로 거듭나면서도 결국에는 정치적 권위를 상실한다는 점에서 군주의 도덕적 권위가 정치적 권위로 곧바로 치환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보여준다. 셰익스피어는 두 작품을 통해 기독교 군주가 가지는 의무와 권한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 군주의 이상이 정치적 현실 속에서 완벽한 실현이

어려워지는 양상을 보여줌으로써 그러한 이상의 허와 실을 구체적 역사를 통해 해부한다.

2. “맞이해야 할 무거운 청산”(A Heavy Reckoning to Make): 『헨리 5세』와 기독교 군주의 책임

셰익스피어의 헨리 5세는 경건함과 현실 정치에서의 수완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통치자로서 권위를 확립하지만 국가와 교회 공동체의 수장으로서 그 자신과 백성의 영혼의 구원 문제를 놓고 백성들과 갈등을 빚는다. 이 작품은 왕권신수설이 옹호하는 군주의 권리에 수반되어야 하는 책임이 무엇인지 기독교 군주의 권리와 의무의 맥락에서 따져 묻고 있다.² 왕권신수설의 핵심은 군주는 신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으며 지상의 어떤 권위나 주체도 군주의 행위를 심판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군주의 권력을 정당화하고 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기반을 배제하는 데에 있다(Sommerville 34).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군주의 책임은 피통치자가 범접할 수 없는 신비한 그 무엇이 된다. 예컨대 성군의 통치는 백성이 신을 충실히 섬긴 데에 대한 신의 보답이라든지, 혹은 폭군의 통치는 불경함의 죄를 저지른 백성에게 신이 가하는 벌이라는 등의 설명은 군주의 행위를 신의 계획이 실행되는 과정으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정치적 행위자로서 군주가 가지는 책임을 은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셰익스피어는 헨리 5세가 프랑스와 벌이는 전쟁의 현실적 배경을 상세히 극화하고 도덕적 명분이 불분명한 전쟁에 백성을 국가의 이름으로 동원하는 헨리에 대해 백성 스스로 그의 정당성을

² 머론(Meron)은 『헨리 5세』가 건드리고 있는 왕의 책임의 문제가 어떤 종류의 질문들이지 분류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질문들이 작품 속에서 충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논의를 맺는다. 그에 따르면 헨리가 직면하는 책임의 문제의 종류로는 ‘왕은 참회하지 못하고 죽은 병사들의 영혼에 책임이 있는가, 있다면 어디까지인가,’ ‘병사들의 정신적 안녕과 그들을 전쟁에 동원한 헨리의 지도자적 책임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부당한 전쟁에서 군주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병사들의 죄를 면제시켜 주는가’ 등이 있다(Meron 159).

묻는 장면을 창조함으로써 헨리가 신의 이름으로 은폐하려 했던 왕의 책임에 관한 문제를 꼼꼼하게 다루고 있다.

I. 섭리주의와 통치의 정당화

섭리주의는 신의 이름을 빌어서 지상의 군주가 행하는 통치를 정당화하고 그의 권력을 유지 및 보존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이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튜더 시대의 섭리주의적 역사관은 군주의 권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 영국의 종교개혁을 자양분 삼아 탄력을 받고 정교화되었으며 엘리자베스조에 이르러서는 절대군주정을 떠받드는 기반으로 기능하였다. 셰익스피어의 헨리 5세는 이처럼 섭리주의적 입장이 자신의 정치적 행위를 정당화해 줄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통치에 이용한다. 1막 2장에 처음 등장하면서부터 그는 프랑스와 벌이는 전쟁의 성패가 “신의 의지”(the will of God; 1.2.289)에 달려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또한 아쟁쿠르 전투 전날 밤 병사들과 벌이는 토론에서 그는 “전쟁은 [신의] 법을 집행하는 관리”(War is His beadle; 4.1.152)이자 신의 “양갓음”(vengeance; 4.1.153)이라 말하면서 전쟁을 대립하는 현실 세력간의 무력 다툼이 아니라 신의 의지가 실현되는 과정이라는 논리를 펼친다. 이어 벌어진 전투에서 기적적인 대승을 거둔 그는 승리의 공로를 오롯이 신에게 돌림과 더불어(4.8.98-104) 부하들에게 시편(Psalms)에 속한 노래들인 「저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Non Nobis”)와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Te Deum”)를 부를 것을 명령한다(4.8.115). 이들은 시편 113번부터 118번까지를 일컫는 “이집트의 할렐루야”(Egyptian Hallelujah) 일부에 속하는 것으로서 “홍해에서 이집트 군대를 물리치고 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함을 찬양”(celebrate the defeat of the Egyptian armies and God’s deliverance of Israel at the Red Sea; Marx 42)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헨리는 위의 두 찬송가를

부르도록 명령함으로써 아쟁쿠르 전투의 승리를 홍해의 기적에 빚대고 신이 그의 편에 서서 그가 승리할 수 있도록 개입하였음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44). 이처럼 그는 섭리주의에 기댈으로써 자신의 경건성을 연출하고 동시에 그와 자신의 나라를 하나님이 돌본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그가 신에 의해 선택된 정통성 있는 군주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신의 섭리가 자신을 지지한다는 점을 공표하는 것은 헨리에게 있어서 자신의 통치가 정당하다는 점을 백성들에게 인식시키는 데에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역설적이게도 헨리가 섭리 실현의 도구임을 성공적으로 보여 줄수록 그의 정치적 권위는 강화되지만 군주로서 헨리의 행위가 수반하는 책임의 소재는 오히려 흐려진다는 것이다. 헨리가 표방하는 섭리주의를 따르자면 신이 그에게 부여한 승리는 헨리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신이 빚어낸 것이고 이 때 헨리는 신적인 의도가 발현되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섭리주의는 군주의 경건함과 정통성을 강조하면서도 법적, 도덕적 책임이 귀속되는 주체로서 군주의 주체성을 소거시킨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프랑스의 왕위계승권을 확보한다는 공식적 사건 속에서 섭리주의를 이용하는 헨리의 정치적 권위는 상승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역사서에 기록되지 않은 인물들과 그가 극중에서 벌이는 논쟁은 헨리가 표상하는 기독교 군주의 도덕적 책임 유무에 관한 심각한 도전을 불러온다. 즉 기독교도 백성들의 정신적 안녕까지도 관장해야 할 목자로서 군주가 신의 명분에 어긋날 수도 있는 전쟁에 이들을 동원할 때 헨리의 행위는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II. “과인과 과인의 가슴이 잠시 토론을 벌여야겠소”(I and my bosom must debate awhile): 군주의 책임

아쟁쿠르(Agincourt) 전투 전날 밤, 긴 행군에 지치고 프랑스군에 대한 수적 열세에 직면해 있는 병사들의 심적 부담감을 떨쳐주기 위하여 헨리는 왕의 신분을 숨긴 채 그들의 진영을 순찰하기로 결심한다. 각 장의 서두에 등장하여 벌어진 일을 미리 안내해주는 코러스(Chorus)는 이 장면에서도 암행에 나서는 헨리의 모습을 어김없이 생생하게 묘사한다. 코러스의 설명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가 헨리의 순찰 행위를 “밤 중의 헨리의 짧은 어루만짐”(A little touch of Harry in the night; 4.1.47)이 그의 부하 및 백성들에게 가닿는 것이라 묘사한다는 점이다. ‘왕의 손길’(the royal touch)의 개념은 연주창(scrofula 혹은 King’s Evil)을 치유할 수 있는 왕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중세 시대부터 군주의 신성 왕권(sacral kingship)을 증명해주는 상징적 의례로 기능하였다(Sturdy 180). 연주창을 고쳐줄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군주는 신이 그의 직위를 인정해 주었다는 점을 드러낼 수 있었으며, 따라서 그의 정통성(legitimacy) 또한 이와 같은 예식을 통해 일정 부분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때, 코러스가 ‘왕의 손길’이라는 고도의 정치적, 종교적 상징성을 내포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우연이라 볼 수 없으며, “모든 기독교 군주의 모범”(the mirror of all Christian kings; 2.0.6)으로서 헨리를 정당한 권위와 백성의 안위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을 두루 갖춘 군주로 표상하려는 코러스의 지속적인 실천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한 극적 재현 이전에 제시되는 코러스의 묘사는 관객 혹은 독자에게 이어지는 장면들에서 헨리가 과연 코러스가 표상하는 그의 모습과 일치하는지 혹은 일치하지 않는지,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떤 점에서 그러한지를 판단해야 하는 과제를 남긴다.

자신의 부하이자 먼 친척인 어핑햄(Erpingham)의 외투를 걸친 헨리는 “과인

과 과인의 가슴이 잠시 토론을 벌여야겠소”(I and my bosom must debate awhile; 4.1.31)라는 말을 남기고 어핑햄의 동행을 거부한 채 순찰을 시작한다. 가장 먼저 보초를 서고 있던 피스톨(Pistol)과 조우하는 헨리는 우려와는 달리 자신의 인격에 대한 피스톨의 개인적 애정과 충성심이 충만하다는 점을 발견한다(4.1.44-7). 또한 동향 사람인 류웰른(Llewellyn)이 가워(Gower)와 하는 말을 엿듣는 헨리는 류웰른의 언행이 구식이고 다소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전쟁에 임하는 “조심성과 용맹함”(care and valour; 4.1.81)이 남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다소 안심한다. 그러나 그가 뒤이어 코트(Court)와 베이츠(Bates), 그리고 윌리엄스(Williams)라는 병졸들과 마주치면서부터 부하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군주로서 자신을 짓누르는 부담감을 위로받고 싶어하던 헨리의 계획은 엇나가기 시작한다. 헨리와 세 병졸의 조우, 그리고 그들이 서로 벌이는 논쟁은 『헨리 5세』가 기반하고 있는 홀린셰드(Holinshed)의 『연대기 3권』(*The Third Volume of Chronicles*) 및 선행작품인 작자미상의 『헨리 5세의 위대한 승리들』(*Famous Victories of Henry the Fifth*)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장면이다. 따라서 이 장면은 극작가로서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셰익스피어의 독창적 상상력이 발휘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가 견지하고 있는 역사의식의 종류를 파악하는데에 요긴한 부분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헨리가 세 병졸들과 벌이는 격론이 작품의 주제를 파악하는 데에 핵심적인 부분이라 판단하고 그들의 논쟁이 파고드는 문제, 즉 기독교 군주의 책임이라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다루어지는지 살펴볼 것이다.

윌리엄스 등의 병졸들은 셰익스피어가 기대고 있던 역사적 기록에서 발견되지 않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작품에서 그들이 하는 말과 근대 초기 전쟁에 동원된 백성들의 속성을 탐구한 현대의 역사서로부터 그들이 속해있는 사회적 위치와 역사적 조건을 유추할 수밖에 없다. 해더웨이(Hattaway)에 따르면, 근대 초기는 국민 국가의 개념이 태동하던 시대로서 개인의 사적 이익이 국가의 이익에 종속

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어 가던 시기였다(86). 그는 코러스가 헨리의 명예 의해 전쟁에 동원될 준비를 하던 백성들이 “말을 사기 위해 목초지를 파는”(sell the pasture to buy the horse; 2.0.5) 행위를 묘사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작품이 국가의 이름으로 전쟁 중 사적 이익의 추구를 제한하는 것이 일상화 된 역사적 상황을 지적한다(89). 비슷한 맥락에서 리코미니(Riccomini) 또한 근대 초기의 전쟁 개념이 영주와 자신의 명예를 위해 싸우던 중세의 기사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백성의 법적 책임의 맥락에서 구성되었음을 밝힌다. 이 때 군인은 기사라기보다는 보수를 조건으로 징집된 “행정적 도구”(bureaucratic tool; Riccomini 42)에 가깝다. 즉 근대 초기의 군인은 영주나 부족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에 의해 행동하기보다는 국가가 법적으로 부과한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행동하는 존재로서 규정되었던 것이다(47).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둘 때, 행정적 조치를 통해 동원된 베이츠와 윌리엄스 등의 일반 병졸들이 헨리와 개인적 친분이 있던 피스톨 혹은 그와 혈연 관계를 맺음과 더불어 기사도적 규범에 묶여있는 귀족들에 비해 헨리에 대해 느끼는 거리감 혹은 소외감이 클 것이라는 점은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게다가 윌리엄스가 전쟁에서 죽어가는 병사들이 외치는 마지막 절규를 상상하고 묘사하면서 “가난하게 내버려진 마누라들”(wives left poor behind; 4.1.127), “그들이 진 빚”(the debts they owe; 4.1.128), 그리고 “벌거벗은 채로 남겨진 자식들”(their children rawly left; 4.1.129-30) 등등을 운운하는 것을 볼 때, 헨리가 벌인 전쟁에 동원된 백성들 중 다수는 스스로 가족을 부양해야만 하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계층에 속함을 알 수 있다. 헨리는 이처럼 전쟁으로 인해 가족이 붕괴되거나 파산할 위험에 놓여 있고 군주의 명예 복종해야 하는 의무로 동원되었기 때문에 전쟁과 승리가 부여하는 명예 따위에 대한 동경이 전혀 없는 백성들의 의심과 염려를 불식시키고 그들의 자발적 복종을 이끌어 내 다가올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야 할 의무를 부과받은 것이다

패배의 암울한 전망에 휩싸여있는 병사들을 위로하기 위해 헨리는 왕 또한 백성들과 같은 인간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의 오감은 보통 인간과 똑같이 느끼고 반응하며, 의례를 벗어 던진 왕은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4.1.99-100). 사실 이와 같은 평등의 수사법은 헨리가 부하들의 응집력을 동원하기 위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전략이다. 본격적인 전투가 개시되기 전에 행하는 대사에서, 전쟁에 참여하게 된 영광을 누리는 자들과 본국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를 놓친 자들을 분리하고 동시에 함께 피를 흘리며 싸울 이들의 사회적 신분 차이를 일시에 소거시키면서 그들을 모두 평등한 “형제”(4.3.62)로 치환하는 헨리는 배제와 평준화의 논리를 그의 목적에 맞도록 출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언어적 수완을 지닌 정치가이다. 그러나 베이츠 등과의 대화에서 헨리가 사용하는 평등함의 논리는 설득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병사들과 동일한 공포와 의심을 왕도 공유한다는 그의 말에 베이츠는 부분적으로 동의하면서 왕 자신도 승리의 가망이 없는 전장을 떠나고 싶을 것이라 맞장구친다. 그러나 이것은 헨리가 의도한 반응이 아니다. 그는 왕 또한 공포를 느끼지만 그것을 억누르고 용맹하게 전투를 준비하듯이 병사들도 마찬가지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왕과 함께 분연히 싸울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왕이 그토록 전투를 원한다면 혼자 남아서 싸우라는 베이츠의 말에 헨리는 “[왕의] 명분이 정당하고 그의 투쟁이 명예로운”([the king’s] cause being just and his quarrel honorable; 4.1.117-8) 현재 상황에서 왕의 곁에서 죽는 것보다 만족스러운 일은 없다고 주장하며 그를 다시 설득하려 한다.

이 때, 헨리가 벌이는 전쟁에 대해 가장 회의적인 눈초리를 보내는 윌리엄스가 끼어들며 왕의 명분이 정당한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밖이라고”(more than we know; 4.1.119) 말한다. 동시에 베이츠는 전쟁의 명분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이상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왕의 백성이라는 것만 알고 있다면 그걸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고”(more than we should seek after, for we know enough if

we know we are the king's subjects; 4.1.120-1) 덧붙인다. 다시 말해 전쟁의 명분이라는 것은 백성이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된다는 말이다. 이 두 병졸은 그들이 전쟁의 명분에 관해 왕이 가진 정보를 가지지 못하고 또한 그에 기반하여 전쟁을 결단한 헨리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한 적 없이 단순히 명령에 의해 동원되었기 때문에 명분이 그릇될 경우 발생하는 “죄악”(the crime; 4.1.122)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주장한다. 윌리엄스는 베이츠의 논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급기야 전쟁의 “명분이 정당하지 않다면 왕 자신은 무거운 **청산**에 직면할 것”(if the cause be not good the king himself hath a heavy *reckoning* to make; 4.1.123-4, emphasis added)이라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는다. 여기서 “청산”(reckoning)이 최후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현세의 죄를 심판당함을 뜻하는 것은 분명하다. 즉 윌리엄스의 추론은 절대군주로서 헨리가 직면해야 하는 심판의 유일한 심급인 하나님의 법정에 그를 잠재적 죄인으로서 고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군주의 통치권이 신으로부터 비롯되었고 군주는 그의 행위에 있어서 오직 신에게만 책임을 진다는 근대 초기 왕권신수설의 옹호자들이 내세운 주장은 군주의 지상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를 다른 모든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신법에 종속되어 있다는”(subject to divine law; Sommerville 34) 점을 그 논리적 귀결로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 군주의 명령이 신의 의지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론적으로 백성은 군주보다 우월한 권위인 신의 뜻을 따라야만 한다.³ 이처럼 윌리엄스는 헨리가 왕과 백성을 동일한 신체적, 감정적 존재로 상정함으로써 백성들의 충성을 유도하려는 시도와는 달리 왕과 백성 양자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평등한 도덕적 주체로 내세움으로써 절

³ 물론 군주에 대한 불복종은 엄격하게 제한적인 맥락 하에서 가능했다. 예컨대 불복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백성은 군주의 명령이 신의 뜻을 위반한다고 믿는 것을 넘어서 그 명백한 사실을 ‘알아야’(know) 했고, 또한 불복종의 대가를 국왕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반란은 용납되지 않았다(Sommerville 35).

대군주가 자신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 짊어져야 할 도덕적 책임을 상기시킨다. 또한 윌리엄스의 고발은 작품 내내 은폐되고 타인에게 전가되었던 헨리의 책임을 절대주의 논리의 연장선 상에서 따지고 있다는 점에서 헨리와 그가 벌인 전쟁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윌리엄스의 말이 완벽한 설득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헨리가 프랑스와 벌인 전쟁의 명분이 부당하다는 증거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병졸들과의 말다툼에서 헨리는 전쟁의 정당성 자체가 어떻게 확보되는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침묵한다. 그러나 작품 전체가 묘사하고 있는 전쟁의 계획과 과정, 그리고 그 여파에 대한 고려를 더해보면 전쟁에 임하는 헨리의 도덕적 명분이 의심받을 여지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1막 1장에서 캔터베리(Canterbury) 주교와 일리(Ely) 주교는 비대해진 교회의 금권과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의회와 왕실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회 재산 환원 법안의 상정을 좌절시킬 방법을 상의한다. 1막 2장에서 캔터베리가 헨리에게 법리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그의 프랑스 왕위 계승권을 정당화하기 이전에 두 주교가 밀담을 나누는 장면을 셰익스피어가 먼저 삽입하였다는 사실은 캔터베리가 주장하는 전쟁의 명분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도록 만든다. 교회의 위세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이 법안은 선왕 헨리 4세(Henry IV) 시기에 이미 발의되었지만 당시 영국의 혼탁한 내부 사정 때문에 흐지부지되었다(1.1.1-5). 그러나 헨리 5세가 왕위를 계승한 현재 이 법안은 다시 상정되었고, 만약 그 법안이 통과된다면 교회는 이미 세상을 떠난 신자들이 유언으로 기부한 면세 혜택을 받는 토지를 전부 잃게 될 상황에 처해 있다(1-9-11).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는 일리 주교의 질문에 캔터베리 주교는 왕실과 정치적 타협을 이루었음을 넉넉히 말해준다. 즉, 캔터베리는 헨리가 문제가 되는 법안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주교회의의 권위를 바탕으로 프랑스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 이전의 어떤 왕들도 수령하지 못한 만큼의 막대한 자금을 왕실에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이다(1.1.75-81). 캔터베리가 헨리

의 구미를 당길만한 제안을 하기 전 헨리는 의회와 협동하여 교회를 압박하려 하였으나, 주교의 타협안을 받아 든 그는 왕실의 이익을 위해 의회를 버리고 교회의 손을 들어주기로 결정을 내렸다. 게다가 프랑스와 전쟁을 벌이게 된다면 헨리는 국내에 잔존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리처드 2세의 지지세력이 결집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기타 내분의 씨앗들로부터 귀족과 백성들의 관심을 외부로 돌릴 수도 있다. 선왕이 숨을 거두기 전에 헨리에게 한 말도 “외적과의 다툼을 이용해서 / 들뜬 마음들을 바쁘게 만들라”(busy giddy minds / With Foreign quarrels; 2 Henry IV 5.1.213-4)는 것이 아니었던가? 『헨리 5세』와 비슷한 시기에 집필한 『존 왕』(*King John*)에서도 셰익스피어는 이처럼 각자의 “정치적 편의”(Commodity; *King John* 2.1.573)에 따라 이합집산을 일삼는 왕실과 교회의 행태를 극화하고 분석한다.

헨리가 캔터베리의 말을 받아들여 프랑스와 전쟁을 결심한 배경에 양자의 현실적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려는 의도가 자리잡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1막 2장에서 그가 전장에서 피를 흘려야 하는 무수히 많은 존재들을 염려하고(1.2.18-20, 1.2.24-8), 캔터베리가 자신의 양심을 걸고 전쟁의 명분이 정당하다고 강변하는 모습(1.2.97)마저 마치 잘 짜인 연극 속에서 양자가 위선적 경건함을 전시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또한 설령 캔터베리가 주장하듯이 에드워드 3세(Edward III)로부터 이어지는 혈통을 물려 받은 헨리가 프랑스 왕위계승권을 가지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명분이 전쟁에 참여하였다가 전사한 병사들의 목숨 값과 그들을 여윈 채 살아가야 하는 가족들의 고난을 상쇄할 만큼 가치있는 것인지도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극 중에서 헨리가 이따금 묘사하는 전쟁의 참화는 너무도 생생해서 그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움찔할 만하다. 작품의 서두에서 코러스가 알려주듯이 전쟁은 “기근과 칼부림, 화재”(famine, sword and fire; 1.0.7)를 “사냥개”(hounds; 1.0.7)처럼 몰고 다닐 뿐만 아니라, “과부들”(widows; 1.2.284)을 만들고, 난폭한 병사들이 처녀를 겁탈하고 노인장들을

확대하며 어린 아이들을 꼬챙이 꿰듯 창에 꽂아버리면서도 눈도 깜빡하지 않는 지옥도를 그려내기 때문이다. 물론 작품에서 헨리가 이와 같은 참상을 만들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쟁쿠르 전투를 통해 수많은 병사들이 전사했다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며 그로 인해 영국이 아닌 프랑스가 극도로 황폐해졌다는 점 또한 작품은 말해주고 있다. 5막 2장에서 프랑스 왕과 헨리의 화평을 중재하는 버건디(Burgundy) 공작의 말은 이러한 맥락에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이 장면에서 “벌거벗고 초라하게 훼손당한 평화”(the naked, poor and mangled peace; 5.2.34)가 회복되기를 염원하는 그는 전쟁 때문에 깨진 평화가 프랑스 땅을 얼마나 척박하게 만들었는지 한탄한다. “학문의 보모”(nurse of arts; 5.2.35)이면서 땅의 풍요로움을 보장하는 평화가 프랑스를 떠나버림으로서 그 곳의 농토와 자연은 “아름다움과 실용성 모두를 잃어버린 채”(Losing both beauty and utility; 5.2.53) 볼품없는 “황야”(wildness; 5.2.55)로 변하고 말았다. 전쟁은 삶의 터전 자체를 허물어버리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버건디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맥락에서 전쟁의 폐해를 규탄한다. 즉 전쟁은 “학문”(sciences; 5.2.58)의 발전을 저해하고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을 피에 굶주린 군인들과 같은 “야만인”(savages; 5.2.59)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다. 전쟁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전투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지 않은 이들조차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금수와 같은 존재로 만든다고 강변하는 버건디의 말은 인문주의자이자 평화주의자였던 에라스무스(Erasmus)의 주장을 연상시킨다. 그는 『격언집』(Adagia)에서 전쟁보다 “인간의 존엄에 커다란 상처를 입히는 행위는 없[다]”(210)고 주장하는가 하면, 『기독교 군주의 교육』(The Education of a Christian Prince)에서는 “모든 전쟁이 수반하는 심각한 악들 중에서 가장 지독한 것들이 전쟁과 관계없는 이들에게로 엄습하는데, 이들은 이러한 참화로부터 고통받을 이유가 가장 적은 사람들이다”(the greatest part of all the great evils which every war entails falls on people unconnected with the war, who least deserve to suffer these calamities; 106)라고 강변한다. 버건디와 에라스무스는 전

쟁이 불러오는 인간과 세계의 총체적인 황폐화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전쟁 계획 과정에서 권력을 소유한 자들이 보여주는 이익본위적 태도와 전쟁 중의 참화, 그리고 전쟁 후의 피폐해진 세상에 대한 묘사가 작품 곳곳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은 이종숙의 지적대로 『헨리 5세』가 “증오스러운 외적과의 전쟁이나 전쟁영웅을 지극히 감정적으로 이해하고 이상화하는 경향을 보[이는]” 엘리자베스조 말기의 “전형적인 영국역사극들”과는 달리 “전쟁을 비판적으로 해부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이종숙, 「Henry V와 Shakespeare의 민중적 관중/편집자들」 218).

다시 4막 1장에서 헨리와 윌리엄스가 벌이는 논쟁으로 돌아와 논의를 이어나가자면, 헨리가 전쟁의 명분 자체를 옹호하지 않는 이유가 그 또한 그것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인지, 혹은 그 정당성이 너무나 명백해서 옹호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해서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헨리가 군주로서 자신의 도덕적 책임을 면제받고자 부단히 노력한다는 점이며, 이 과정에서 전쟁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도덕적인 문제점을 은폐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군주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 군주가 일으킨 전쟁에서 무자비하고 참혹하게 살해당한다면 그들을 사지로 내몬 군주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윌리엄스의 주장에 대하여 헨리는 비유와 논리적 추론 등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언어적 수법을 사용하여 반박한다. 그러나 언뜻 보기에 정당해 보이는 그의 반론은 곱씹어 볼수록 건강부회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래 당신[윌리엄스]의 법칙을 따르자면, 아버지의 명에 따라 **장사**를 떠난 아들이 죄를 씻지 못한 채 바다에서 익사한다면, 그의 부정함에 대한 책임은 그를 보낸 아버지에게 있겠구려. 혹은 만약 주인의 명령을 받고 **돈뭉치를 운반**하던 종이 강도의 습격을 받아 많은 사악한 행위들을 참회하지 못한 채 죽어버린다면, 당신은 주인의 **사업**이 좋놈이 천벌을 받게 되는 장본인이라 주장할지도 모르겠소.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왕은

그의 군인들 각자의 개별적인 최후에 응답할 의무가 없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또한 주인은 종에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른 이들에게 임무를 맡겼을 때, 그들의 죽음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So if a son that is by his father sent about *merchandise* do sinfully miscarry upon the sea, the imputation of his wickedness, by your [Williams's] rule, should be imposed upon his father that sent him. Or if a servant, under his master's command *transporting a sum of money*, be assailed by robbers and die in many irreconciled iniquities, you may call the *business* of the master the author of the servant's damnation. But this is not so. The king is not bound to answer the particular endings of his soldiers, the father of his son, nor the master of his servant, for they purpose not their death when they purpose their services. (4.1.134-43, emphasis added)

위에서 인용된 구절에서 헨리는 전쟁을 사업 및 장사 등의 경제적 활동으로 치환한다. 또한 헨리의 논리를 따르자면 군주는 도덕적으로 중립적으로 여겨지는 일을 부여하고 감독하는 사업가, 그리고 병사들은 그러한 사업을 밑에서 실행하는 도구가 된다. 헨리의 논변에는 두 가지의 치명적 난점들이 있다. 첫째, 무엇보다도 전쟁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활동이 아니다. 그것은 정당하거나 부당하다는 도덕적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인 것이다. 헨리는 전쟁에 붙어 있는 도덕적 평가의 꼬리표를 은폐함으로써 전쟁 명분의 정당성을 따지는 행위 자체의 근거를 소멸시키려 한다. 나아가 그는 전쟁을 상업 활동으로 비유함을 통해 도덕적 명분이 없는 군주의 명령에 백성은 과연 복종해야 하는가라는 의문도 소거하려 한다. 그러나 전쟁과 금전적 사업이 가지는 도덕적 위상이 서로 다른 것이 분명한 이상, 헨리의 비유는 설득력을 잃게 된다.⁴ 둘째, 전쟁은 사업과 달리 도덕

⁴ 헨리가 다소 어설피게까지 보이는 위의 비유를 스스로 얼마나 믿고 있는지는 불분

적 색깔을 지니기 마련이므로 명분이 없는 전쟁에 백성을 동원한 경우 군주는 도덕적 책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당한 전쟁을 거부할 수단이 없이 징집된 병사들이 전사하는 경우 그것은 부당한 죽음이고 그 책임은 애초에 그들을 소환한 군주가 져야하는 것이다. 그러나 헨리는 부하들의 죽음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헨리의 직접적 의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비도덕적 상황을 형성하고 그것에 강제로 백성의 생사를 연루시키는 그의 정치적 결단에 있는 것이다.

윌리엄스의 도전에 맞서 계속 이어지는 반론에서 헨리는 죄없는 병사들만을 이끌고 전쟁에 나서는 군주는 없다고 주장하며(4.1.144-6) 그들이 전쟁 이전에 지은 죄를 속죄하지 못하고 전사했다고 해서 이에 대한 책임을 군주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지적한다. 이 주장을 발판삼아 그는 결국 “모든 백성의 의무는 왕에게 속하지만, 모든 백성의 영혼은 각자의 것이다”(Every subject's duty is the king's, but every subject's soul is his own; 4.1.159-60)라고 선언하기에 이른다. 헨리의 이 말은 결국 백성의 복종을 받을 권리는 누리면서 피통치자들의 행위 및 정신적 안녕에 대한 도덕적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헨리는 자신도 다른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신 앞에서 심판 받아야 할 개인이라는 점 자신은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죄의 철저한 개인화를 통해 헨리는 백성의 우두머리인 자신에게까지 책임이 번지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절대주의가 요구하는 군주의 초상에 빗대어 볼 때, 군주의 절대적 권리는 누리되 이에 수반되는 도덕적 책임으로부터 끊임없이 도피하고자 하는 헨리는 이상

명하다. 그렇지만 앞에서 캔터베리 주교와 헨리가 서로의 이득을 위해 정치적 타협을 이루어낸 사실을 상기해 볼 때, 헨리가 전쟁을 이득을 남겨야 하는 사업으로 비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헨리는 이 비유를 통해 군주가 벌이는 전쟁 사업에 대한 중요한 진실을 누설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적인 군주라 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셰익스피어가 헨리를 모범적인 절대군주의 모습으로 재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헨리의 개인적 실패로 돌리면서 절대주의의 이상 자체는 옹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군주로서 헨리가 보여주는 무책임한 태도는 기독교 군주가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기 때문이다. 즉 절대주의는 군주의 권력 강화를 주장하면서 그의 행위를 지상에서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모든 장치를 무장 해제시켜버리기 때문에 설사 군주가 부당한 통치를 행한다고 해도 이를 적절히 견제할 수단을 마련할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다시 말해 절대주의의 맥락에서 군주가 신이라는 “보이지 않는 권위에 대해 지는 책임을 인정”(the admission of accountability to an invisible authority; Chavura 168)한다고 해서 군주의 전횡을 효과적으로 막을 방법은 찾기가 힘들다는 뜻이다.

따지고 보면 2막 이후로 작중에서 헨리는 프랑스라는 국외 세력을 제외한 영국 내부의 세력으로부터 견제를 받지 않거나 혹은 캠브리지(Cambridge)를 비롯하여 미래에 자신의 권위에 도전할지도 모르는 세력을 이미 제거해버린 상태로 존재한다. 그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교회는 국왕의 행보에 어떠한 의문도 표시하지 않고, 주교들은 1막 이후로 극 중에서 자취를 감춘다. 의회 또한 그 존재가 잠깐 언급될 뿐 왕실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묘사된다. 이처럼 헨리가 지니는 권력의 절대성을 알고 있기 때문인지 윌리엄스는 결국 백성이 지은 개인적 죄에 대하여 “왕은 응답할 의무가 없다”(the king is not to answer it; 4.1.168)고 말하며 헨리의 말에 수긍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심지어 베이츠는 왕을 위해 “씩씩하게 싸울 것”(fight lustily; 4.1.170)을 다짐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이 극을 보는 관객이나 독자까지 이 두 병사들과 같은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앞서 분석하였듯이 군주의 면책에 관한 헨리의 주장은 그 논리적 정당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렇게 헨리의 자기정당화가 드러낸 논리적 허점이 작품이 끝날 때까지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그

가 아쟁쿠르에서 거둔 위대한 승리도 빛이 바래고 무언가 꺼림칙한 뒷맛을 남기게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III. 나가며

왕권신수설에 기반한 군주를 표방하는 헨리는 섭리주의에 기대거나 자신의 정치적 행위가 불러오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타자에게 돌림으로써 스스로의 권위를 유지한다. 이처럼 군주가 가지는 권력의 절대성은 역설적으로 그가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로서 지니는 주체성을 축소시키고 은폐함으로써 형성되고 유지된다. 그러나 셰익스피어는 신의 은총을 입고 그의 섭리를 실현시키는 도구로서 자신을 표상함으로써 행위의 책임 소재를 신에게 돌림을 통해 도덕적 자기 정당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하고, 더불어 정치적 술수를 사용하여 국민 국가의 군주로서 자신에게 부과된 도덕적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려 하는 기만성을 동시에 나타내는 헨리가 겪는 도덕적 딜레마를 극화하면서 국민 국가로 발돋움하는 영국에서 변화하는 왕권의 위상을 탐구한다. 주권자로서 헨리는 국민에 대한 통치권을 갖지만 동시에 한 기독교도이자 인간으로서 신 앞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헨리 6세에게 있어서 그가 인간이라는 사실은 순교를 통해 예수의 죽음에 동참함으로써 그가 기독교 군주의 권위와 정당성을 획득하게 되는 원인이 되지만, 헨리 5세에게 있어서 인간성이란 그의 정치적 권위가 가지는 한계가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근거가 된다.

2. “그의 경건함이 어울리는 자리”(A State Fit for His Holiness): 순교자-왕으로서 헨리 6세

앞의 장에서 살펴본 『헨리 5세』의 5막 3장에서 코러스는 아버지를 이어 즉위한 헨리 6세 시기에 영국이 맞이하는 역경을 예고하면서 연극을 끝맺는다. 비록 『헨리 6세』는 『헨리 5세』보다 먼저 집필되었지만 코러스의 예고는 『헨리 6세』를 그의 아버지의 이야기의 뒤에 연결시켜서 읽을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헨리 6세』 삼부작은 영광스러웠던 헨리 5세의 치세가 그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끝이 난 뒤, 헨리 6세가 왕위에 오른 시점부터 그가 폐위당하고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영국이 국내외적인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무질서가 극에 달해가는 역사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본 장에서는 셰익스피어의 헨리 6세가 순교자-왕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의 경건함이 만들어내는 정치적 의미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즉, 셰익스피어의 헨리 6세는 혼란스러운 시기에 왕위에 올라 거듭된 실정으로 영국을 도탄에 빠뜨린 무능한 군주가 아니라 사사로운 이익과 야심의 추구에 눈이 먼 귀족들이 만들어내는 도덕적 아노미 상황에서 희생당하는 고결한 성자가 된다. 그는 주권자로서 성공적인 통치를 통해 정치적 권위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시름하는 영국의 고통을 스스로 짊어짐으로써 국가와 동일시되고 나아가 순교자적인 죽음을 통해 기독교 군주로서 권위를 획득한다. 그렇지만 헨리는 이 과정 속에서 정치적 권위를 잃고 후계자 없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와 그의 가문이 영국에 대해 가진 통치권을 잃어버리게 된다. 즉 셰익스피어는 성자로서 최후를 맞이하는 헨리를 그리면서 그를 모범적 기독교도로 표상하지만 동시에 그가 현실 정치의 세계에서 완전히 탈락하는 양상 또한 추적하면서 기독교 군주의 권위가 곧바로 정치적 권위의 획득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밝힌다. 이처럼 헨리 6세가 당하는 수난과 종래

에 그가 맞이하는 죽음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기 위해서 먼저 그의 왕권에 가해지는 위협의 성격과 그러한 위협을 주동하는 세력이 만들어내는 세계가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I. 추기경 뷰포트(Cardinal Beaufort)가 헨리 6세의 왕권에 가하는 위협

『헨리 6세』 1부는 헨리 5세의 죽음 이후 영국을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국내의 봉건 귀족들 사이의 불화와 프랑스로부터 비롯되는 외세의 위협을 그리고 있다. 이어지는 2부와 3부에서 격화되어 내전으로 치닫게 되는 갈등의 씨앗들이 1부에서 소개되는 셈인데, 흥미롭게도 셰익스피어는 어린 왕 헨리 6세의 왕권과 그의 치하 영국을 위협하는 주요한 인물로 후에 추기경이 되는 윈체스터(Winchester)의 주교를 내세운다. 워머슬리(Womersley)는 『헨리 6세』 1부가 16세기 프로테스탄트 역사가들의 묵시록적 사관에 따라 집필되었으며, 그 맥락 속에서 추기경은 교황을 위시한 구교적 세계와 깊숙하게 맞닿아 있는 일종의 적 그리스도(Antichrist)적 형상으로 그려진다고 주장한다(Womersley 246). 워머슬리의 입장은 『헨리 6세』 연작에서 재현되는 헨리의 왕권이 가지는 성격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좋은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는 셰익스피어 “당대 영국에서는 종교적 정체성과 국가적 정체성의 문제는 동일한 문제였으며, 정치뿐 아니라 연극을 포함한 당대의 모든 문화, 연설 행위를 지배한 관심사”(이종숙, 「종교개혁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르네상스 연극」 70)였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구교 세력의 위협을 받는 헨리와 그가 표상하는 영국이 얼마나 프로테스탄트적 관점에서 그려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또한 촉발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2부와 3부에서 유약하고 무능한 군주로서 헨리가 겪는 수난과 죽음이 과연 어떠한 종교적, 정치적 의미를 지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도 1부에서 그의 왕권을 위협하는 요소가 지니는 성격을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작품은 영국의 유력한 봉건 귀족들이 헨리 5세의 장례식을 집전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그가 살아 생전 보여줬던 덕목들과 그가 얻은 영광들을 되새기면서 진행되던 장례 절차는 글로스터(Gloucester) 공작과 윈체스터 주교 사이에 붙은 시비 때문에 이내 말다툼의 장으로 돌변한다. 글로스터는 윈체스터가 헨리 5세에게 가졌던 원한을 상기시키면서 “그대는 학동처럼 그대가 위압할 수 있는 연약한 군주 외에는 맘에 들어 하지 않소”(None do you like but an effeminate prince / Whom like a schoolboy you may overawe; 1.1.35-6)라고 비판한다. 윈체스터는 야심만만한 성직자로서 교회의 권위를 이용해 왕의 권리를 침탈할 기회만을 노리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둘 사이의 해묵은 갈등이 인신 공격의 형태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도 있었던 글로스터의 이 말은 1막 1장의 꼬트머리에서 윈체스터가 행하는 독백에 의해서 사실로 증명된다.

각자가 자신의 자리와 맡아야 할 직분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제외되었고; 날 위해선 아무 것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한량으로 오래 남아있진 않을 것이다,
 엘섬으로부터 왕을 몰래 데려와서,
 나라의 뱃고물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을 것이다.
 Each hath his place and function to attend;
 I am left out; for me nothing remains;
 But long I will not be Jack-out-of-office,
 The King from Eltham I intend to steal,
 And sit at chiefest stern of public weal. (1.1.173-7)

이 독백에서 윈체스터는 자신을 정치적인 장에서 배제된 야심과 불만에 찬 불평가(malcontent)로 표상하고 있다(Taylor 107). 그러나 셰익스피어 작품의 원전자 사료로 쓰인 홀에 따르면, 이 시기에 윈체스터는 이미 엑시터(Exeter)와 더불어 어린 왕의 공동 후견인이었다(Bullough 45). 셰익스피어는 이 부분에서 의도

적으로 윈체스터가 왕실과 맺고 있는 관계를 축소시키고 그를 왕실 내부의 인물이 아닌 외부의 존재로 그리면서 이후에 교회와 왕권이 맞이하러 충돌을 예비한다. 1막 3장에 이르면 윈체스터가 대표하는 교회세력과 글로스터가 이끄는 왕실세력의 충돌이 본격적으로 그려지고, 이 과정에서 왕권을 침탈하려고 하는 주교의 야심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무기고를 점검하기 위해 런던 탑에 당도한 글로스터는 윈체스터의 명을 받은 수위에 의해 입장을 거부당한다. 런던 탑이 영국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보석 왕관을 대대로 보관하고 있는 장소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아직 나이가 어린 헨리 6세를 대신하여 섭정(the Lord Protector)으로서 통치자의 자격을 가지는 글로스터의 행차를 교회의 권위를 등에 업은 윈체스터가 막는다는 사실은 단순히 두 유력 봉건 귀족간의 세력다툼을 넘어서는 더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 된다. 게다가 국왕이 교황과 지상권을 가지고 끊임없는 갈등을 빚고, 나아가 구교 세력으로부터 왕권의 존립까지도 위협받았던 튜더 왕조 시기 영국을 살았던 관객들에게 윈체스터의 행위는 이미 지나간 역사 속에서 한 번 벌어지고 말았던 갈등일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그들을 괴롭히는 위협을 상기하도록 만든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셰익스피어는 작중 인물들로 하여금 윈체스터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16세기 당대에 신교도들이 교황을 비롯한 구교의 세력들이 표상하는 사악함을 공격하기 위해 썼던 표현들을 사용하도록 만들고 있다. 글로스터는 윈체스터가 자기 교구 창녀들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 면죄부를 팔았다고 지적하는가 하면(1.3.35), 그가 참된 신앙을 가장하여 신도들을 미혹하고 거짓된 길로 이끄는 “양의 탈을 쓴 늑대”(wolf in sheep’s array; 1.3.55)이자 “진홍빛 위선자”(scarlet hypocrite; 1.3.56)라고 말하며 비난을 퍼붓는다. 둘 사이의 무력다툼을 중재하는 런던 시장(Mayor) 또한 윈체스터가 “악마보다 더욱 오만불손하다”(more haughty than the devil; 1.3.84)는 평가를 내린다. 글로스터의 비난에 맞서서 윈체스터는 자신이 런던탑을 접수한 이유는 그의 개인적 야심 때문이거

나 모반의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헨리를 글로스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반론한다. 왕국의 가장 유력한 귀족으로서 글로스터는 런던탑의 무기를 탈취하여 “스스로 왕위에 올라 군주를 억압하기”(To crown himself and suppress the Prince; 1.3.68)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막기 위해 선수를 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윈체스터의 말과는 달리, 『헨리 6세』 2부의 1막 2장에서 글로스터는 유약한 헨리를 제거하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라는 공작 부인의 말을 꾸짖으며 절대 자신은 “군주이자 조카”(my king and nephew; 2H6, 1.2.20)를 배신할 수 없다고 선언하며 왕권을 차지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한다. 또한 작품 전반을 통틀어서 헨리의 “지팡이”(crutch; 2H6, 3.1.189)로서 그의 통치를 성심껏 돕고 그의 안위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인물은 사실상 글로스터밖에 없기도 하다. 이런 점을 놓고 볼 때, 윈체스터가 글로스터에게 가하는 공격은 자신의 악덕을 가리기 위한 거짓 변명밖에는 될 수 없으며 스스로 “위선자”임을 증명하는 꼴이 된다.

1부에서 셰익스피어 당대 영국인들이 구교도들의 위협에 대해 느꼈던 공포와 혐오감이 가장 극대화되는 부분은 5막 1장에서 그가 추기경 서품을 받은 뒤에 등장하여 또 다른 독백을 내뱉을 때이다. 교황의 사절(Legate)에게 서품의 답례 표시로 돈을 건넨 후, 그는 추기경의 권위를 이용해 글로스터를 굴복시킬 것을 다짐하며,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할 시 “반란을 일으켜 이 나라를 강탈하겠다”(sack this country with a mutiny; 5.1.62)고 선언한다. 추기경의 이 말은 종교 개혁 이후 발생한 종파적 갈등을 봉합하고 백성들의 충성을 보장받아 왕권의 안정화를 꾀해야 했던 튜더 프로테스탄트 군주들이 가장 염려했던, 구교의 권위를 등에 업은 세력들의 반란에 대한 공포를 직접적으로 자극한다. 1570년 엘리자베스를 파문하고 영국의 모든 구교도들에게 그녀에 대한 충성의 의무를 면제한 교황의 명령은 일부 구교도들의 직접적인 국왕 암살시도로 이어졌으며, 교황의 사주를 받은 구교도들의 반란은 왕실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억제되어

야 하는 것이었다.⁵ 이러한 위기의식을 느낀 영국의 왕실은 당시 국교도들이 사용한 설교집에 『불복종과 계획적 반란에 반대하여』 (*An Homily against Disobedience and Willful Rebellion*) 제목의 설교를 추가하였다. 당시 모든 교구에 비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강론의 소재가 되었던 이 설교는 16세기 후반에 튜더 왕권이 처해있던 위기에 대한 처방으로서 왕권신수설을 이용하여 신민의 복종을 이끌어내려 했던 왕실의 의도가 여실히 드러나는 문서이다. 또한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당대 유럽에서 횡행하고 있던 반란과 종교 전쟁들을 일으킨 장본인이자 배후로서 교황이 지목된다는 사실은 튜더 왕권신수설이 반구교주의와 맺고 있는 불가분의 관계를 보여준다. 따라서 추기경의 앞선 독백도 설교집이 그리고 있는 교황의 초상에 빗대어서 바라보아야 한다.

설교의 저자는 신이 창조한 세계의 기본 질서를 이루는 핵심 가치를 복종으로 규정한다. 타락 이전에 인류는 신께 복종함으로써 낙원에서 지극히 복된 삶을 영위하였으나 “반란의 창조자”(founder of rebellion; 2)인 사탄의 꾀에 빠져 신께 불복종을 저지르게 되었고 그 결과 낙원으로부터 추방되어 온갖 “질병과 신체의 죽음”(diseases, [and] death of their bodies; 2)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저자는 인간이 지상의 비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만든 원흉인 반란을 “첫째이자 가장 큰 죄임과 동시에 다른 모든 죄들의 뿌리”(the first and the greatest, and the very root of all other sins; 3)로 내세운다. 이에 따르면 지상의 모든 질서는 신을 정점으로 하는 천국의 그것을 모방하고 있으며, 여기에 불복하고 반란을 획책하는 것은 기존 질서에 대한 정치적 도전임과 동시에 가장 불손한 도덕적 죄악

⁵ 해당 교황령에 대해서는 Robert S. Miola Ed., *Early Modern Catholicism: An Anthology of Primary Sources* (New York: Oxford UP, 2007), 486-8 참조. 이 문서에서 교황은 엘리자베스를 백성들을 거짓된 신앙으로 이끌고 교회의 권위를 침탈한 이단자로 규정하면서 그녀의 왕권이 정당하지 않음을 주장한다. 따라서 그녀에 대한 모든 충성의 의무는 면제되고, 여전히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충성하는 자는 그녀와 마찬가지로 이단의 죄를 짓는다는 것이다.

이 된다. 특히 군주에 대한 도전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데, 그것은 군주의 권위는 신에 의해 부여된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을 읽음으로 해서 우리는 . . . **선량하든 사악하든** 왕과 제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에 따라 통치한다는 것과 . . . 신민은 그들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군주들에게 지혜와 강력한 권력과 권위를 주셨고, 그들을 적들로부터 보호하시며 적들을 무섭게 부수어 버리신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군주의 노여움과 분노는 흡사 사자의 울음과 같고 죽음의 참된 전령이며 그를 노엽게 하는 백성은 그 자신의 영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다 . . .

As in reading of the Holy Scriptures we shall find . . . that kings and princes, *as well as the evil as the good*, do reign by God's ordinance, and . . . subjects are bounden to obey them; that God doth give princes wisdom, great power, and authority; that God defendth them against their enemies, and destroyeth their enemies horribly; that the anger and displeasure of the prince is as the roaring of a lion, and the very messenger of death; and the subject, that provoketh him to displeasure, sinneth against his own soul . . . (3-4, emphasis added)

인용된 구절에서 저자는 설령 폭군이라 할지라도 백성이 군주에게 불복종할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한다. 이 내용은 설교 곳곳에서 성경과 역사를 활용한 다양한 예시를 통해 반복되어 전달된다. 만인의 눈에 사악하게 보이는 군주 또한 신에 의해 선택된 것이며 폭군의 지배를 받는 것은 이제까지 백성들이 지었던 죄에 대한 신의 “정당한 처벌”(their deserved punishment; 9)로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사악한 군주는 신이 보낸 채찍이며 그에 대해 저항하는 것은 군주뿐만이 아니라 신의 의지에 저항하는 죄가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선량하고 정의로운 군주의 지배는 백성들이 정직하게 살아온 데에 대한 신의 보상이며 이는 기뻐할

일이다. 이러한 근거를 통하여 저자는 “선량한 군주를 가질 자격을 갖추거나 혹은 마땅히 주어진 대로 끈기 있게 참고 복종하자”(let us either deserve to have a good prince, or let us patiently suffer and obey as we deserve; 10)는 당부에 이르게 된다. 즉 이 부분에서 튜더 왕권신수설과 섭리주의적 역사가관이 서로 만난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정치적 불복종에 대한 명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불복종이 기독교인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악의 근원임을 확인한 뒤, 설교의 후반부에서 저자는 당시에 유럽에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던 반란을 사주하는 원흉으로서 교황을 지목한다. 일개 로마 교구의 주교에 불과한 자가 “용납할 수 없는 야심”(intolerable ambition; 47)을 가지고 “교회”(the Church; 47)와 “모든 기독교 왕국들”(all Christian kingdoms; 48)의 혼란을 획책하는 방편으로 “법도에 어긋나는 선동을 통해 백성들이 그들의 군주에 대해 모반을 일으키도록”(the unnatural stirring up of the subjects unto rebellion against their princes; 48) 꾸민다는 것이다. 이렇게 왕국의 분열을 획책함으로써 교황 자신은 왕을 대신해 지상권을 차지하려 하고 “성직자라기보다는 모든 면에서 군주와 국왕, 황제와 더욱 비슷하게”(more like princes, kings, and emperors in all things, than . . . like priests; 49) 행동하는 셈인데, 이는 권위에 대한 복종을 가르쳤던 예수와 그의 사도들의 가르침(47)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것이며 따라서 저자가 보기에 교황은 적그리스도의 현신이 된다.⁶

⁶ 설교의 저자는 교황이 영국의 왕권을 핍박한 사례로 존(John) 왕의 역사를 들고 있다(Homily 55-6). 존 왕과 헨리 6세의 시대는 수 세기의 간격이 있지만 유사한 점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두 군주 모두 교회 세력이 왕권에 가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갈등을 빚고 있었고, 귀족들의 저항을 감내해야 했기 때문이다. 셰익스피어는 『존 왕』(King John)에서 교황의 신권 세력에 맞선 존 왕의 왕권 수호 투쟁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존 왕은 아서(Arthur)의 살해를 명하는 등 심각하게 부도덕적인 행위를 저지른 폭군이기도 하며, 셰익스피어는 이러한 폭군으로서 존 왕에 대한 충성이 과연 옳은 것인지를 묻고 있다. 반면에, 셰익스

『헨리 6세』 2부에 이르면 자신의 야심에 따라 영국의 분열을 획책하고 왕국을 지배할 권리를 노리는 추기경의 행태가 구체화된다. 그는 반-글로스터 파벌의 수장을 자처하면서 명목상 헨리 6세 바로 다음의 지위를 갖지만 섭정으로서 최고 실권을 쥐고 있는 글로스터의 파멸을 노린다. 역사적으로 1422년부터 1437년까지는 헨리가 아직 나라를 혼자서 다스릴 만큼 장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랑스와 영국에 각각 섭정을 두고 그들이 왕의 친척들로 구성된 위원회(Council)와 협의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체제가 작동하고 있었다. 따라서 추기경이 글로스터를 제거한다는 것은 그가 정치 질서의 가장 상층부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섭정 체제를 붕괴시킴으로써 헨리의 통치를 어렵게 만들고 그의 지지 기반을 무너뜨리는 셈이기도 하다. 설교문이 그리는 ‘반란을 획책하고 불복종을 선동하는 교황’처럼 추기경 또한 교회 권력을 이용해 군주의 통치 기반을 위협하는 것이다. 1막 1장에서 추기경은 글로스터가 헨리와 마가렛(Margaret)의 결혼 조건의 굴욕적인 성격에 분개하며 무대를 퇴장하자마자 나머지 귀족들을 선동하기 시작한다. 그는 글로스터가 아직까지 후사가 없는 헨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the next of blood; 1.1.150)이며 “왕위 계승권자”(heir apparent; 1.1.151)라는 이유를 들면서 그가 장차 왕위를 노릴 것임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추기경의 이 말은 그 자신처럼 야심만만한 귀족들이 반-글로스터 동맹을 맺게 되는 기폭제가 된다. 다시 말해, 셰익스피어는 그가 작품의 3부에서 다루어지게 될 장미전쟁(The Wars of Roses)이 벌어지게 된 원인 중 하나로서 귀족 계급 간의 불화로 인한 왕권의 약화를 들고 있는 셈인데, 그는 추기경을 그러한 불화의 원흉으로 꼽고 있는 것이다.

추기경의 계략에 찬동하는 귀족들과 그의 권위를 시기하는 마가렛은 1막 3장

피어의 헨리 6세는 영국 전체의 죄악을 짊어지고 대신 죽음을 맞이하는 순교자로 그려진다는 점에서 존 왕과 차이를 보인다.

에서 급기야 글로스터에게 다양한 혐의를 씌워서 섭정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협박한다. 글로스터가 섭정의 권위를 이용해 흡사 왕인 것처럼 오만하게 군다는 서포크(Suffolk)의 질타(1.3.123-8)에서부터 시작되어, 그의 지나친 과세(1.3.129-30), 그와 부인의 사치(1.3.131-2), 법 집행에 있어서 가혹함과 이중잣대(1.3.133-5), 그리고 프랑스에서의 매관매직(1.3.136-8) 등 작품 안에서 확인되지 않는 여러 가지 범죄의 누명을 쓰게 되는 글로스터는 결국 3막 1장에 이르러 “국가에 대한 반역”(high treason; 3.1.97) 혐의로 고발을 받고 투옥된다. 그리고 그는 추기경이 보낸 자객에 의해 목 졸라 암살된다. 셰익스피어는 암살된 글로스터의 시체가 놓여있는 침대를 무대 전면에 내세우는가 하면, 워릭(Warwick)으로 하여금 글로스터의 시신이 보여주는 표정을 자세하게 묘사하도록 함으로써 그의 죽음이 가지는 끔찍한 범죄성을 자세하게 밝힌다(3.2.160-78). 그러나 계략과 범죄, 속임수로 자신의 야심을 실현시키고자 했던 추기경은 글로스터의 죽음이 다루어진 3막 2장의 바로 다음 장에서 급작스러운 발작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한다. 그는 환상에 빠져서 ‘죽음’을 보고 생명을 연장할 수만 있다면 “영국의 모든 보화”(England’s treasure; 3.3.2)를 ‘죽음’에게 바치겠다고 맹세한다. 이처럼 자신이 전생애 지은 죄를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추악한 죽음을 맞이하는 추기경의 모습을 보고 헨리는 이것을 “사악한 삶의 징표”(a sign . . . of evil life; 3.3.5)로 해석한다. 작품은 추기경을 교활한 구교 성직자의 전형으로 삼음으로써 그가 왕권에 가하는 위협이 가지는 악마성을 그가 죽는 순간에도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글로스터에 대한 적개심의 형태로 분출되는 추기경의 야망이 큰 위협이 되는 이유는 단지 그가 셰익스피어 당대의 반구교주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작품에서 글로스터는 왕을 대신해서 영국의 사법권을 쥐고 있기도 하거니와 그 자신이 보여주는 법에 대한 존중에 비추어볼 때 그는 법의 권위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글로스터와 추기경이 이끄는 반-글로스터 파벌의 갈등은 단순히 유력 봉건 귀족들의 아귀다툼이 아니라 교회 권력을 등에 업은

세력이 영국의 법적 전통과 권위를 침식하는 과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2부의 1막 2장에서 등장하는 민중 청원자들(Petitioners)은 각자 탄원서를 가지고 글로스터를 만나고자 한다. 그들이 그를 찾는 이유는 글로스터가 다른 귀족들이 민중을 착취하고 핍박하는 행태를 법적으로 정의롭게 해결해줄 수 있으리라는 믿음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글로스터에 대한 민중의 지지는 이처럼 그가 귀족들의 사사로운 이익 추구에 맞서서 공정한 법 집행을 행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데에서 기인한다. 헨리 또한 글로스터가 법에 대해서 가지는 해박한 지식과 권위에 의지한다. 견습공인 피터(Peter)는 그의 상급자인 장인 호너(Honer)가 요크(York)야말로 적법한 왕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며 그를 고발한다(1.3.191-3). 이에 대해 호너는 피터가 그에 대한 악감정으로 자신을 모함한다고 상반된 주장을 펼친다(1.3.199-203). 두 사람의 말을 들은 헨리는 글로스터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고, 글로스터는 피터와 호너의 말이 상반되고 누구의 주장이 진실인지를 가릴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과거의 “판례에 따라”(by case; 1.3.205) 그들이 결투를 통해 스스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판정한다. 또한, 그는 요크가 반역을 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합당한 의심이 드는 만큼 프랑스의 섭정으로 요크가 아닌 서머셋(Somerset)이 적절하다는 충고도 곁들인다(1.3.206-7). 이 장면에서 글로스터의 이와 같은 판결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요크 또한 침묵을 지킨다는 사실은 글로스터의 법적 권위가 정당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글로스터가 보여주는 법에 대한 존중은 그의 부인이 지은 죄에 대해 내려진 판결을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이용해서 철회시키지 않는다는 데에서 잘 나타난다. 엘레너(Eleanor)는 마녀(Witch)를 집으로 불러 왕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물은 것이 발각되어, 역모의 혐의를 받고 공개적인 참회에 이은 유배의 처벌을 받게 된다. 헨리가 엘레너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순간에 글로스터는 이렇게 말한다: “엘레너, 당신이 알고 있는 법이 판결을 내렸소; / 나는 법이 단죄하는 자를 위해 변명할 순 없다오”(Eleanor, the law thou seest hath judgèd

thee; / I cannot justify whom the law condemns; 2.3.15-6).⁷ 이처럼 법의 권위와 법에 대한 존중을 동시에 표상하는 글로스터의 죽음은 그가 사라진 이후 영국이 맞이하게 되는 법의 공백 상태가 시작됨을 뜻하고 헨리가 직면해야 하는 고난의 성격 또한 알려준다. 글로스터가 투옥되기 직전 남기는 마지막 말은 그의 죽음이 영국을 어떤 상태로 만들지에 대한 적절한 묘사를 제공한다.

미덕은 사악한 야심에 질식당하고,
자애심은 깊은 원한의 손에 쫓깁니다.
흉악한 위증교사가 판을 치고,
공평함은 전하의 땅에서 추방당하였습니다.
Virtue is choked with foul ambition,
And charity chased hence by rancour's hand.
Foul subornation is predominant,
And equity exiled your highness' land. (2H6, 3.1.143-6)

이 대사에서 글로스터는 추기경이 이끄는 세력에 의해 영국에서 정의가 설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사라져버렸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추기경이라는 적그리스

⁷ 이러한 글로스터의 태도는 작중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미 존재하는 법을 따위는 무시할 수 있다는 생각을 보여주는 여러 귀족들과 확연한 대조를 이룬다. 추기경과 함께 글로스터의 살해 모의를 주도하고 마가렛과의 연인 관계를 이용하여 헨리를 조종하려고 하는 서포크는 1부에서 이미 이런 생각을 내비친다. 자신이 “법에 대해선 농땡이”(a truant in the law; 1H6, 2.4.7)라고 밝히는 서포크는 “이제까지 나의 욕망을 그것에 맞추어 굽힐 수 없었기 때문에, 법을 내 욕망에 맞도록 구부린다”(never yet could frame my will to it, / And therefore frame the law unto my will; 2.4.8-9)고 말한다. 3부에서 요크의 아들 에드워드(Edward)와 리처드(Richard) 또한 헨리가 살아있을 동안 왕위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요크의 맹세가 가지는 무게를 무시하라고 간언하며, “왕관을 쓰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 일인지”(How sweet a thing it is to wear the crown; 3H6, 1.2.29)를 아버지에게 납득시킨다. 아들들의 이 말을 들은 요크는 비로소 헨리와의 전면전을 결심하게 되고 영국은 최악의 혼란상태를 맞이한다.

도가 영국의 왕권을 위협하는 양상은 무분별한 사적 이익의 추구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법이라는 국가의 중요한 토대를 침식하는 것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이다. 비록 3막 3장에서 추기경 자신은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가 벌인 글로스터의 암살은 향후 작중 인물들이 어떠한 법적 감시나 도덕적인 자의식 없이 무분별한 폭력의 연쇄로 들어서는 길을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함의를 지니게 된다. 즉, 그 자신은 추악한 최후를 맞이함으로써 스스로 영국을 “강탈”하지는 못했지만 요크와 그의 아들들이 공공연한 무력을 통해 왕좌를 노릴 만큼 헨리의 왕권을 허약하게 만드는 최초의 원흉이 되는 셈이다.

II. 「헨리 6세」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편의주의로서 마키아벨리즘 비판

뒤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헨리 6세가 표방하는 경건함은 그가 내전으로 신음하는 영국의 고통을 스스로 짊어지고 순교자의 죽음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담당한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그것은 그의 정치적 무능함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헨리 사후 영국에서 발생한 헨리 6세 숭배의 흐름을 추적하는 맥케나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헨리의 통치를 평가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실한 기독교인으로서 그가 정치에 대해서 보여주는 “매력적인 무관심함과 분통이 터질 정도의 무능함의 기묘한 혼합”(curious mixture of charming indifference and exasperating incompetency; “Piety and Propaganda” 79)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말하면서, 통치를 관장하는 군주로서 헨리 6세는 형편없었다고 주장한다. 셰익스피어도 헨리의 경건함, 혹은 선한 의지가 성공적인 정치적 의지로 번역되지 않고 또한 좋은 통치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그는 또한 헨리와 대조적으로 현실 정치의 영역에서 유능함을 보여주는 인물들이 오히려 영국을 더욱 큰 혼란에 빠뜨린다는 점을 더욱 강조하여 극화함으로서 헨리의 정치적 무능함은 군주로서 그가 보여주는 약

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즉, 헨리의 정치적 무능함과 연결된 경건함은 결점이 아니라 정치적 자산이 되는 셈이다.

작품에서 헨리와는 대조적으로 정치적인 분별력(discretion)이 뛰어나고 그에 따라 정략적으로 성공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인물로 요크와 그의 아들 리처드가 제시된다. 1부의 2막 5장에서 요크는 리처드 2세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신의 삼촌 모티머(Mortimer)로부터 신중함(prudence)의 미덕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다. 헨리 5세 시기부터 투옥되었던 모티머는 죽음의 순간에 헨리 4세가 리처드 2세로부터 왕위를 찬탈한 경위와 요크의 아버지인 캠브리지 백작(Earl of Cambridge)이 역모의 죄를 쓰고 죽게 된 사정을 설명하면서 후사가 없던 자신의 후계자로 요크를 지목한 후 숨을 거둔다. 그러면서 그는 요크에게 주어진 마땅한 권리를 되찾을 것을 요구하면서도 “꼼꼼한 조심성을 가지고 경계하라”(be wary in thy studious care; 2.5.97)는 조언을 남긴다. “랭카스터가는 세력이 굳건하고 / 산처럼 움직이지 않을 것”(Strong fixed is the house of Lancaster, / And, like a mountain, not to be removed; 2.5.102-3)이기 때문에 우선은 “침묵으로”(With silence; 2.5.101) 신중하게 형세를 살피라는 것이다. 모티머의 조언을 가슴 깊이 새길 것을 다짐하는 요크는 바로 다음 장에서 삼촌이 가르친 ‘침묵의 미덕’을 수행한다. 윈체스터와 글로스터의 다툼을 목격하면서 그는 전자의 오만함에 “일격을 가하고”(have a fling at; 3.1.64) 싶은 마음을 누르고 “입을 다물기”(hold his tongue; 3.1.61)로 한다. 그는 아직까지 자신의 작위를 돌려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두 거물의 다툼에 끼어들 수가 없고, 또한 작위를 되찾기 위해서는 지금의 자신보다 유력한 자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요크는 1부와 2부에서 현실 정치에서 작동하는 권력 관계의 흐름을 가장 잘 읽어내는 인물로 그려지며, 그러한 흐름 속에서 모티머가 그에게 가르쳐 준 신중함의 미덕을 잃지 않는 요크는 점점 더 세력을 불릴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작품 속에서 ‘신중함’은 주로 ‘힘의 정치’의 영역에서 다른 이들을 누르

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자질로 그려진다. 공작의 작위를 획득한 요크는 2부가 시작 부분에서 그가 향후에 헨리를 어떻게 굴복시키고 왕위를 차지할지 그 계획을 담은 독백을 들려준다. 그는 혼란스러운 정치 형세 속에서 우선은 글로스터의 편을 들겠다고 말하지만(1.1.238) 그것은 그가 글로스터의 권위와 미덕에 동조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제거되어야만 글로스터의 보호를 잃은 헨리를 제압하기가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요크여, 알맞은 때가 올 때까지 잠자코 있거라.
남들이 잠이 들었을 때, 경계하고 깨어 있거라,
국가의 비밀을 파고들기 위하여,
헨리가 그의 새 신부이자 영국이 비싼 값을 치르고 산 왕비와
사랑의 기쁨 속에 몰두하고,
험프리가 귀족들과 다툰 때까지.
그제서야 나는 달콤한 향기로 공기를 물들이는
우유처럼 하얀 장미를 높이 쳐들고
깃발에는 요크의 문장을 새겨서
랭카스터 가문과 다툼을 벌일 것이다;
그리고 현학적인 통치로 아름다운 영국을 허물어뜨리는
그가 강제로 왕관을 양보하도록 만들 것이다.

Then York, be still a while till time do serve.
Watch thou and wake when others be asleep,
To pry into the secrets of the state,
Till Henry surfeit in the joys of love
With his new bride and England's dear-bought queen,
And Humphrey with the peers be fall'n at jars.
Then will I raise aloft the milk-white rose,
With whose sweet smell the air shall be perfumed,

And in my standard bear the arms of York,
 To grapple with the house of Lancaster;
 And force perforce I'll make him yield the crown,
 Whose bookish rule hath pulled fair England down. (1.1.238-58)

이 독백에서 요크는 앞서 모티머가 조언한대로 자신에게 적절한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누구보다 경계심을 늦추지 않을 것임을 다짐함과 동시에 때가 당도하면 헨리를 힘으로 몰아낼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요크의 이 대사에서 그가 표방하는 군주의 성격이 헨리의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점을 지닌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요크는 헨리의 경건함과 유달리 학문을 좋아하는 태도를 잘 알고 있지만, 그는 헨리의 이러한 특징이 통치자의 자질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음을 꼬집는다. 헨리의 경건함과 학식, 그리고 “성직자 같은 기질”(church-like humour; 1.1.246)은 현실 정치에 관한 분별력을 토대로 지배를 실현해야 하는 군주의 위치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스릴 줄 모르는 자들은 복종하라”(Let them obey that knows not how to rule; 5.1.6)는 것이 요크의 모토인 셈인데 그는 이처럼 지배력을 갖춘 통치자의 자격을 자신이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 아일랜드의 반란을 토벌하고 돌아와서도 군대를 해산하지 않는 요크를 꾸짖는 버킹엄(Buckingham)의 말을 듣고 요크는 방백을 통해 “왕보다 내가 혈통이 더욱 고귀하고, / 그보다 더욱 왕다우며, 생각에 있어서도 더욱 왕에 걸맞는다”(I am far better born than is the King, / More like a king, more likely kingly in my thoughts; 5.1.28-9)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요크는 헨리가 아닌 자신이 영국의 군주가 되어야 하는 이유로 리처드 2세의 혈통에서 비롯되는 계승의 적법성과 왕이 가져야 하는 자질 두 가지를 들고 있다. 그렇지만 헨리 6세는 랭카스터 왕조를 시작한 헨리 4세의 혈통을 이은 손자라는 점에서 헨리 4세에 비하여 정통성의 논란성이 적은 편이다. 요크 또한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끌어모으기 위하여 헨리의 비정통성과 자신의 정통성을 내세울 뿐, 정작 그가 실제로 헨리의 왕권을 공격할 때 드는 이유는 헨리가 군주로서 자격 미달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요크가 말하는 ‘왕다운 생각’이란 무엇인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3막의 마지막에서 그가 행하는 독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일랜드 토벌군의 수장으로 임명된 그는 드디어 헨리에게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을 얻었음을 인지하면서도 모반에 수반되는 공포를 떨쳐버리기 위해 자신의 마음에 채찍을 가한다(3.1.331-4). 결심을 굳힌 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실을 짓기 위해 애쓰는 거미보다 더욱 분주한 나의 머리는
내 적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정교한 덫을 엮는다.
자, 귀족들이여, 종소. 병사들의 무리를 대동해
날 보내는 것은 빈틈없는 처사요.
하지만 당신들은 굶주린 뱀을 데워주는구려,
가슴 속에 간직되었다가 당신들의 심장을 물어버릴.
나에게 없던 것은 병사였고, 당신들은 나에게 그들을 주었지.
감사히 받겠소; 하지만 명심하시길
당신들은 광인의 손에 날카로운 무기를 쥐어줬다는 걸.
My brain, more busy than the labouring spider,
Weaves tedious snares to trap mine enemies.
Well, nobles, well: 'tis politicly done
To send me packing with an host of men.
I fear me you but warm the starved snake,
Who cherished in your breasts will sting your hearts.
'Twas men I lacked, and you will give them me.
I take it kindly; yet be well assured
You put sharp weapons in a madmen's hands. (3.1.339-47)

이 독백에서 요크는 이전의 신중한 침묵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정적들을 제압할 수 있는 계책을 마련할 것이라 선언한다. 요크의 태도 변화가 그의 정치

적 영향력의 증대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동시에 그가 겪는 비인간화의 과정을 증언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거미”, “뱀” 등과 같은 교활함을 상징하는 동물로 자신을 비유하고 또한 “광인”이라는 말까지 덧붙이는 요크를 보여줌으로써 셰익스피어는 정치적 현명함을 가진 인물이 도덕성을 버리게 될 때 그가 잃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인간성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그러나 힘과 술수를 통한 지배를 목표로 삼는 요크에게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왕관이지 도덕성을 핵심으로 하는 왕의 인간성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요크가 보여주는 분별력과 신중함, 그리고 적절한 술수의 사용은 마키아벨리(Machiavelli)가 『군주론』(*The Prince*)에서 이상적 군주의 자질로 꼽고 있는 것들이다. 앞서 서론에서 살펴보았듯이, 마키아벨리가 그리는 정치 세계는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주가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은 이처럼 이익본위적인 인간의 성질을 권력의 획득과 보존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군주론』 18장에서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여우(fox)와 사자(lion)의 성질을 동시에 지녀야 한다고 주장하는데(56), 이 중 특히 여우의 기질은 변화무쌍하고 술수가 난무하는 정치 세계에서 타인이 사용하는 술수를 감지하는 데에 필요한 분별력과 신중함의 덕목을 내포하고 또한 스스로 술수를 통해 타인을 제압할 수 있는 기지(wit) 또한 포함한다.⁸ 앞선 독백에서 요크가 사용하고자 하는 술수는 케이드(Cade)를 사주하여 대규모의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는 민중들이 “얼마나 요크 가문의 왕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데에 지지를 표하는지”(How they affect the house and claim of York; 3.2.375) 알아보기 위해 케이드를 존 모티머(John Mortimer)로 가장시켜 “소요”(commotion; 3.1.358)를 일으키겠다고 말한다. 이어서 요크는 아일랜드를 토

⁸ “뱀을 인지하기 위해서 군주는 여우가 될 필요가 있고, 늑대들을 겁주어 쫓아내기 위해서 사자가 될 필요가 있다”(one must be a fox in order to recognize traps, and a lion to frighten off wolves; Machiavelli 57).

별하고 돌아와 케이드라는 “악당이 씨 뿌려놓은 것을 거두어 들이겠다”(reap the harvest which that coistrel sowed; 3.2.381)고 말한다. 케이드를 요크 가문의 지지를 확인하는 정치적 도구로 쓴 뒤 그가 일으킨 반란을 그것을 사주한 그가 제압함으로써 민중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겠다는 것이다.

요크가 권력을 획득하는 방식이 기만과 술수, 그리고 적절한 때에 사용되는 폭력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헨리가 표방하는 왕권과 차이를 보인다면, 그는 군주로서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헨리와는 다른 입장을 보인다. 아일랜드 원정에서 돌아온 뒤 정적 서머셋의 처단을 헨리에게 요청했지만 그가 버젓이 돌아다니는 것을 본 요크는 헨리를 왕이라고 부르기조차 거부한다. “반역자를 감히 다스려고도 하지 않는—아니 다스릴 수도 없는”(dar’st not—no, nor canst not—rule a traitor; 5.1.95) 유약한 자가 왕위를 차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요크에게 있어서 “왕홀”(princely sceptre; 5.1.98)은 만인으로 하여금 경외감을 불러 일으켜야 하고 군주는 그의 “웃음과 찡그림”(smile and frown; 5.1.100)만으로도 백성을 “죽이고 살릴”(kill and cure; 5.1.101)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군주의 손은 “지배하는 법률을 제정”(act controlling laws; 5.1.103)할 수 있어야 하므로 군주에게 어울리는 능력을 갖춘 자신이 왕위에 더 적합하다는 것이 요크의 주장이다. 백성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경외감을 통해 권위를 추구하는 것과, 그리고 스스로 법을 제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의 획득은 요크가 표방하는 힘의 정치를 통해 권력을 획득한 군주가 마땅히 사용해야 통치기술인 것이다.⁹

⁹ 마키아벨리 또한 “백성들의 단결과 충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잔혹함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비난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a prince must not worry if he incurs reproach for his cruelty so long as he keeps his subjects united and loyal; 53)고 말한다. 지나친 동정은 미움과 업신여김을 불러올 수도 있지만, “공포는 미움의 부재와 사실 양립할 수 있기”(fear is quite compatible with an absence of hatred; 54) 때문이다. 마키아벨리의 이 주장에서도 인간에 대한 그의 현실적인 이해를 감지할 수 있다. 인간은 배은망덕하고 변덕스러우며 거짓을 일삼는 존재이기 때문에, 군주가

요크에게 있어 왕관과 그것이 표상하는 영국에 대한 지배권은 그의 조상으로 부터 랭커스터 가문이 부당하게 강탈해간 것으로 복수를 통해 되찾아야 하는 소유물이다. 2부 1막 1장에서 그는 양주(Anjou)와 메인(Maine)이 프랑스에게로 넘어가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들을 잃어버린 헨리와 다른 귀족들을 “해적”(pirates; 1.1.221)으로 비유하고 자신을 소유권이 명백한 재산을 해적들에게 빼앗기고도 제대로 반항조차 못하는 “어리석은 주인”(the silly owner; 1.1.224)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요크가 자신의 정적들을 차례차례 제압한 결과 찾아오는 것은 질서의 회복이 아니라 더욱 극심한 혼란과 폭력의 만연이다. 사실 『헨리 6세』 3부는 요크와 랭카스터 가문 사이에 벌어진 왕권 투쟁이 극단으로 치달을 때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보고서이기도 하다. 셰익스피어는 요크의 사례를 통해서 마키아벨리가 논하는 정치와 윤리의 분리와 결과주의적 정치관 자체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셰익스피어는 마키아벨리가 비정상적인 혼란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사용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 기술이라는 것이 본래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수단 자체로서 이상화기 십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한 수단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인물들이 만들어내는 세계가 얼마나 잔혹한지를 그리고 있다. 2부의 옥스퍼드판 편집자인 워런(Warren)은 작품에서 “policy”라는 단어가 아주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작품이 진행되면서 그 의미가 ‘정치적 현명함’에서 ‘정치적 편의주의’로 점차 바뀌어 간다고 설명한다(180). 예컨대 1부에서 모티머가 요크에게 가르쳐주는 신중함의 덕목이 ‘정치적 현명함’으로서 “policy”를 가리킨다면, 추기경과 서포크가 글로스터의 암살 방법을 모의하면서 어떤 방법이 가장 “policy”에 가까운지 이야기할 때에(3.1.235-242) 이 단어는 현명함이 아니라 ‘정치적 편의주의’의 극단을 보여준다는 것에서 이러한 의미변

배우는 사랑과 동정은 정작 그가 위협에 처하게 되었을 때, 돌려받지 못하는 반면에 공포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기 때문에 지속적인 복종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54).

화를 확인할 수 있다.

3부에서는 정치적 편의주의가 일종의 규범이 된 세계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냉혹하고 위험한 인물이 나타난다. 요크의 셋째 아들 리처드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마키아벨리적 정치 기술의 가장 악마적인 측면만을 계승받은 자로 그려진다. 흥미롭게도 셰익스피어는 요크의 장남 에드워드보다 리처드가 아버지에게 느끼는 심리적 유대감이 훨씬 크다는 점을 군데군데에서 암시한다. 리처드는 “[요크]의 아들이라는 것 자체가 충분한 횡재”(tis prize enough to be [York’s] son; 2.1.20)라고 말하는가 하면, 요크가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는 아버지와 같은 이름을 지닌 자신이 그 이름을 걸고 아버지의 죽음에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다짐한다(2.1.87-8).¹⁰ 리처드가 정치적 야심가로서 요크의 후계자임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로는 2부에서 요크가 담당하던 불평가다운 독백을 3부에서 리처드가 맡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혹은 1부까지 엮어서 생각한다면, 리처드는 또한 추기경의 후계자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3부의 3막 2장에서 리처드는 2부에서 요크가 그러했듯이, 왕관을 차지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까지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참고 기다리겠다고 말한다(3.2.126-7). 그러나 리처드에게는 요크가 랭카스터 가에 대항하여 왕권을 주장할 수 있었던 정통성과 명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가 왕위를 노리는 이유는 그가 가진 물골의 흥측함이 타인의 애정을 받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better person than myself; 3.2.167) 위에 서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으로 스스로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의 왕위

¹⁰ 역사적으로 요크가 웨이크필드(Wakefield) 전투에서 전사하였을 때, 아직 어렸던 리처드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여 어머니를 따라 유럽 대륙에 피신해 있었다(Bullough 180). 그러나 셰익스피어는 리처드를 장미 전쟁이 시작될 때부터 요크를 돕도록 그리고 있는데, 이는 리처드가 요크의 심리적 후계자라는 맥락에서 의미있는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를 가로막는 어떠한 이들이라도 “살벌한 도끼로”(with a bloody axe; 3.2.181) 처단해 버리겠다는 것이다. 폭력의 무분별한 사용과 더불어 리처드는 왕권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감정을 감추거나 혹은 있지 않은 감정을 연기할 것이라고 말한다.

물론, 난 웃을 수 있고 웃는 동안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에 대고 ‘만족’이라고 외칠 수도 있고,
꾸며낸 눈물로 내 뺨을 적실 수도 있으며,
온갖 상황들에 내 표정을 맞출 수 있다.

(...)

난 카멜레온에 색깔을 더할 수 있고,
이익을 위해 프로테우스처럼 모습을 바꿀 수도 있지,
그리고 흉악한 마키아벨리를 가르칠 수도 있다.

Why, I can smile and murder whiles I smile,
And cry ‘content’ to that which grieves my heart,
And wet my cheeks with artificial tears,
And frame my face to all occasions.

(...)

I can add colours to the chameleon,
Change shapes with Proteus for advantages,
And set the murd’rous Machiavel to school. (3.2.182-93)

이 대사에서 리처드는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외양과 실재를 분리시킬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가 3막 이후에 보이는 행보는 위의 선언에 부합한다. 그가 험에드워드의 편에 서서 싸우는 이유는 “에드워드가 아니라 왕관에 대한 사랑”(not for the love of Edward but the crown; 4.1.125)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외양과 실재의 분리를 추구하는 것은 리처드가 모든 혈연관계에서 벗어나 기

묘하게 자기충족적인 인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된다. 5막 6장에서 헨리를 살해하고 난 후 그는 “나는 형제가 없고, 형제답지도 않다”(I have no brother, I am like no brother; 5.6.80)고 말하면서 “나는 나 혼자이다”(I am myself alone; 5.6.83)라고 주장한다. 리처드는 도덕적 기준이 무너지고 정치적 편의주의만이 만연한 영국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악이며 그러한 세계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처럼 셰익스피어는 정치적 편의주의가 도달하는 종착점은 도덕적 질서의 파괴와 모든 사회적 유대관계의 실종이라는 점을 리처드를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III. 순교자-왕으로서 헨리 6세

추기경과 요크, 리처드 모두 자신이 가진 역량과 세력을 이용해 권력의 사다리를 오르는 야심가의 면모를 보여준다면 이와 대조적으로 헨리는 군주임에도 불구하고 세속적 권력의 추구하고 행사에 대하여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 신실한 기독교인답게 사색적인 삶을 소망하는 헨리는 모든 일에 신의 뜻이 담겨있음을 느낀다. 그에게 있어서는 영국이 프랑스와 벌이는 전쟁도 군주로서 자신의 지배권을 확장하고 명예를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professors of one faith; *1H6*, 5.1.14)들이 벌이는 “불경스럽고 반인륜적인”(impious and unnatural; 5.1.12) 투쟁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된다. 이처럼 헨리는 1부에서부터 이전투구를 벌이는 여타의 귀족들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인다. 군주로서 그가 표방하는 왕권을 더욱 잘 알기 위해서는 케이드를 따라 반란을 일으켰던 무리들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목에 굴레를 쓴 채”(halters on their necks; 4.9.11) 헨리 앞에 끌려온 그들에 대하여 헨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병사들이여, 오늘 그대들은 목숨을 구제받았고,
 그대들의 군주와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었다.
 앞으로도 계속 이처럼 선량한 마음을 지니도록 하고,
 비록 헨리, 그는 불행하지만,
 그대들에게 결코 **매정하지 않을** 것임을 의심치 말아라.
 그러니 그대들 모두에게 감사와 용서를 베풀며,
 각자 속한 지역으로 해산하기를 명하노라.

Soldiers, this day have you *redeemed* your lives,
 And showed how well you love your prince and country.
 Continue still in this so good a mind,
 And Henry, though he be unfortunate,
 Assure yourselves will *never be unkind*.
 And so with thanks and pardon to you all,
 I do dismiss you to your several countries. (4.9.15-21, emphasis added)

반역이라는 중죄를 저지른 뒤 완전히 무력한 상태로 헨리 앞에서 그들의 “생과사를 가르는 심판”(doom of life and death; 4.9.12)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놀랍게도 헨리는 면죄부를 준다. 이것은 앞에서 서술한 설교에서 반역이란 씻을 수 없는 죄이고 가장 무거운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과 배치된다. 그러나 헨리가 반역이 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케이드의 무리들을 용서하는 것은 아니다. 그에게 있어서 백성이란 군주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바치고 그 의무를 어길 때 엄한 벌로 다스려야 할 대상이라기보다는 언제든지 죄를 저지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얻어 갱생할 수 있는 존재에 가깝다. 그가 사용하는 “구제받았음”(redeemed)이라는 단어 또한 단순히 목숨을 건졌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가 인류의 죄를 대신 속죄하고 그들에게 다시 영적 갱생의 기회를 주었음을 상징시키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또한 “매정하지 않을 것”(never be unkind)이라는 구절도 음미해볼 만하다. ‘kind’라는 단어는 ‘친절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 ‘동류’라는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위의 대사를 살펴보면 헨리가 반역자들을 용서하는 이유는 그 또한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죄의 길로 빠질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추기경 뷰포트가 글로스터 공작이 그가 보낸 자객에 의해 암살당한 이후 지독한 양심의 가책을 당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때, 헨리가 보여주는 태도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저토록 끔찍한 죽음은 극악무도한 삶을 증거하는 것이지요”(So bad a death argues a monstrous life; 4.1.30)라는 워릭(Warwick)의 말에 헨리는 이렇게 말한다: “판단을 삼가시오, 우리는 모두 죄인이잖소”(Forbear to judge, for we are sinners all; 4.1.31). 이처럼 인간을 바라보는 헨리의 태도는 각도에 따라 사뭇 비관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타인에게 관대함을 베풀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 자신 스스로는 보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참회하고 반성하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헨리의 이러한 성격은 정치적으로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요구될 때 약점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1부의 4막에서 서머셋과 요크가 각각 랭카스터 가와 요크가의 정통성을 놓고 다툰 때, 헨리는 이들을 중재하면서 편파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기 위해 서머셋의 붉은 장미를 선택한다. 양자 모두 헨리에겐 “친척”(kinsmen)이고 그는 “두 사람 다 사랑하기”(love them both; 4.1.155) 때문에 어느 색깔의 장미를 들든 상관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행위는 요크가 품고 있는 야심을 헨리가 간과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작품이 진행됨에 따라 요크는 차츰 세력을 불러 나가고 결국 헨리의 왕권을 위협에 빠뜨리게 된다. 2부에서도 프랑스의 섭정(regent) 자리를 놓고 서머셋과 요크가 각각 자신이 적임자임을 주장할 때 헨리는 “과인은 누가 되든 상관없소 / 서머셋이든 요크든 나에게 똑같소”(I care not which: / Or Somerset or York, all's one to me; 1.3.102-3)라는 대답으로 일관한다.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 볼 때, 헨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공정성은 통치자로서 마땅히 보여주어야 할 판단력의 결여와 국사에 대한 무관심으로까지

비치기도 한다. 헨리가 보여주는 정치적 무능함은 그의 아내 마가렛의 명민함과 대조된다. 3막 1장에서 요크와 서머셋이 프랑스의 섭정 문제로 또 다시 다투기 시작하자 그녀는 “공기와 연료가 주어지면 / 이 불씨는 맹렬한 불길로 번질 것”(this spark will prove a raging fire / If wind and fuel be brought to feed it with; 3.1.302-3)이라고 말하면서 둘 사이의 언쟁을 일거에 중단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헨리가 보여주는 깊은 신앙심과 이에 비례하는 정치적 순진함은 주변 인물들에게 있어서 격렬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작품에서 서포크와의 대리 혼인을 통해 헨리의 왕비가 되는 마가렛은 서포크와 헨리를 비교하면서 헨리에 대한 실망감을 숨기지 않고 표현한다.

난 헨리 왕이 당신을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용맹함과 구애하는 능력, 그리고 신체 조건에서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신성함에 쏠려 있죠,
목주를 세면서 아베마리아 기도를 드리면서요.
그를 위해 싸우는 투사는 예언자들과 사도들이고,
그의 무기는 성경의 신성한 말씀인데다가,
그의 서재가 마상 창시합장이고, 또 그의 사랑은
시성된 성자들의 청동상이랍니다.

I thought King Henry had resembled thee
In courage, courtship, and proportion.
But all his mind is bent to holiness,
To number Ave-Maries on his beads.
His champions are the prophets and apostles,
His weapons holy saws of sacred writ,
His study is tilt-yard, and his loves
Are brazen images of canonized saints. (2H6, 1.3.54-61)

마상 창시합의 요소와 헨리의 신앙 생활의 단면들을 하나하나 엮으면서 마가렛은 기독교인으로서 헨리의 경건함을 강조함과 동시에 그가 기사로서 부적격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녀가 보기에 헨리에게 어울리는 직책은 “교황”(Pope; 1.3.62)이지 기사들의 우두머리로서 왕은 아닌 것이다. 그렇지만 마가렛의 헨리 비판에서 중요하게 읽어낼 수 있는 것은 헨리가 비록 정치적 명민함이나 무력은 갖추고 있지 못하지만 그의 경건함은 교황에 비견될 만큼 출중하다는 점이다. 마가렛의 이 말은 3부에서 헨리가 통치권을 상실하지만 참된 기독교 군주로서 그의 정신적, 종교적 권위를 통해 정치적 적법성을 획득할 것이라는 점을 예비적으로 암시한다.

3부에서 영국의 내전은 격화되고 헨리는 점점 정치적으로 설 자리를 잃어간다. 그러나 파비니(Parvini)의 지적대로 정치의 영역에서 배제될수록 헨리는 글로스터가 사라진 이후에 극의 도덕적 중심으로서 확고한 목소리를 찾기 시작한다(156). 2막 5장에서 그러지는 타우튼(Towton) 전투에서 헨리가 행하는 독백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주목할 만하다. 목가적 형식을 통해 발화되는 이 독백에서 헨리는 군주가 짊어져야 하는 근심과 불안, 의심으로부터 벗어나 단순하고 소박한 목동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소망해본다. 그러나 궁정의 실상과 전원적 이상을 대비시킴으로써 전원을 향한 도피 욕구를 드러내는 듯이 보이는 헨리의 말은 극 중에서 그가 처해있는 상황과 독백 이후 연달아 벌어지는 사건들 속에서 생각해 볼 때 보다 복잡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홀에 의하면 타우튼 전투는 장미전쟁 중 발생한 여러 전투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격렬한 것이었다. 그는 “이 맹렬한 전투와 피비린내 나는 다툼”(This deadly battayle and bloody conflicte)이 10시간 넘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 3만 5천명 이상의 영국인들이 사망하였다고 적고 있다(Bullough 182-3). 흥미롭게도 셰익스피어는 이 지점에서 홀의 전투 묘사를 충실히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원전의 해당 부분에는 등장하지 않는 헨리를 전투 장면 중간에 무대로 소환한다.

이 전투는 마치 아침의 전쟁처럼 벌어지는구나
 죽어가는 구름이 떠오르는 빛과 닮을 때,
 목동이 그의 손톱을 불면서
 대낮인지 밤인지 분간할 수 없을 때.

This battle fares like to the morning's war
 When dying clouds contend with growing light,
 What time the shepherd, blowing of his nails,
 Can neither call it perfect day nor night. (2.5.1-4)

헨리는 전투의 향방이 어느 쪽으로 쏠릴지 알 수 없는 오리무중의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새벽의 어슴푸레한 모습을 은유로 사용하고 이를 통해 목가적 형식의 독백을 시작한다. 그러나 그는 곧장 전원의 이상적 비전을 노래하지 못하고 한 번 더 전쟁의 격렬함을 묘사한다. “거대한 바다”(a mighty sea; 2.5.5)에서 “조류”(the tide; 2.5.6)와 “바람”(the wind; 2.5.6)이 싸우지만 어느 편도 상대를 제압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이 싸움에서 배제된 주변인의 위치에서 왕이 아닌 “소박한 목동”(a homely swain; 2.5.22)으로서 자신을 상상하기 시작한다. 그는 세상의 “애통함과 슬픔”(grief and woe; 2.5.20)으로부터 비껴나서 흘러가는 시간을 구획짓는 법을 알고 난 다음 목동으로서 규칙적이고 정돈된 방식으로 양을 치고, 정해진 수명을 채우면 “조용한 무덤”(a quiet grave; 2.5.40)으로 들어가 삶을 마감하는 인생이 “얼마나 달콤하고 즐거운지”(How sweet, how lovely; 2.5.41)를 생각한다. 목동으로서의 삶이 이토록 평화롭고 안락한데 “근심과 불신, 반역”(care, mistrust, and treason; 2.5.54)에 고통받고 “백성의 배신을 두려워해야 하는 왕들”(kings that fear their subjects' treachery; 2.5.45)의 호화가 목동의 수수한 음식과 누추하지만 안온한 잠자리와 비견될 수 있겠는가라고 헨리는 묻는다.

그러나 극 중에서 그의 독백이 잠깐이나마 나타내는 낙관적인 전원의 비전은

잇따른 사건에 의해서 부서지고 만다. 헨리가 독백을 마치자마자 그의 앞으로 아버지
 를 죽인 아들과 아들을 죽인 아버지가 각각 그들이 죽인 핏줄을 떠메고 등
 장한다. 그들은 혼란한 전투 속에서 누구를 상대한지 모른 채 죽인 후 그들의 시
 신을 약탈하려 하다가 비로소 신원을 확인한 후 비통해한다. 내전은 가장 기본적
 인 혈연 관계마저도 파괴할 정도로 영국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린 것이
 다. 홀은 이 사건을 전달하면서 내란이 초래한 혼란이 극도로 “반인륜적
 인”(unnatural) 것이었음을 지적한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도 아들(Son)과
 헨리, 아버지(Father) 모두 그들이 속한 ‘시대’가 얼마나 잔혹한지에 대해 비탄한
 다(heavy times; 2.5.63, bloody times; 2.5.73, this miserable age; 2.5.88). 헨리가
 “슬픔 위의 슬픔, 흔한 비통함보다 더한 비통함”(Woe above woe, grief more than
 common grief; 2.5.94)이라고 정리하는 이 사건은 헨리가 앞선 독백에서 이야기
 했던 세상의 버거움에 대한 전망을 확인시켜주는 구실을 한다: “슬픔과 비통 외
 에 이 세상에 있는 게 무엇인가?”(what is in this world but grief and woe?; 2.5.20)
 나아가 친족살해가 벌어지게 된 원인을 반추하면서 헨리는 “사자들이 굴을 차지
 하기 위해 다투고 전쟁을 일으키는 동안 / 가엾고 순진한 양들이 그들의 불화
 때문에 고통받는구나”(Whiles lions war and battle for their dens, / Poor harmless
 lambs abide their enmity; 2.5.74-5)라고 말한다. 즉 야심에 찬 귀족들의 아귀다
 툼이 그들과 전혀 관련이 없는 약자인 백성들을 사지로 몰아갔다는 것이다. 헨리
 는 목동으로서 자신의 양떼들을 맹수로부터 구해줄 힘이 없으며 그들의 “눈물을
 눈물로”(tear for tear; 2.5.76) 닦아줄 수 있을 뿐이다. 역설적이게도 실패한 군주
 로서 헨리는 이 지점에서 자신의 백성들과 가장 강력한 감정적 유대를 맺을 수
 있게 된다. 전원적 이상을 노래하는 한가로운 목동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책임
 에 짓눌리고 도무지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에서 비
 탄하는 목동으로서 헨리는 단순히 실패한 군주가 아니라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역사적 순간의 목격자이자 증언자가 되는 것이다.

내전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의 슬픔을 극 중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함께 통감하는 헨리는 이 때부터 영국의 고통을 대변하고 혼자 짊어지는 인물로 그려진다. 요크 가에 의해 통치권을 잃게 되는 헨리는 이처럼 백성들의 고통을 표상하면서 비로소 국가와 동일시되고 또한 기독교 교리에 입각하여 질서의 붕괴와 폭력의 만연을 고발한다는 점에서 기독교 군주로서 정통성을 확고히 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군주로서 헨리가 획득하는 권위는 성공적인 통치가 아니라 그의 경건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나아가 그의 권위는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 가장 강력해진다. 런던 탑에 유폐된 헨리는 그를 암살하러 온 리처드에게 저항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칼에 찔려 죽음을 맞이한다.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신에게 자신의 죄를 용서하기를 청하며 참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심지어는 리처드조차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를”(pardon; 5.6.60) 기도한다. 순교가 기독교 신앙과 진리를 증오하는 자에 의하여 초래되어야 하고, 순교자가 그것을 신앙의 증명을 위해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면 헨리의 죽음은 이러한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한다. 리처드는 기독교적 믿음과 그것이 수반하는 도덕적 질서를 경멸하는 세계의 총아이고 헨리는 이처럼 부도덕한 자마저도 사랑하고 용서받기를 간구하는 예수의 가르침을 죽음의 순간에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헨리의 순교자적 죽음은 신의 대리자로서 왕이 인간으로서 유한성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하게도 순교자-왕으로서 헨리는 죽음을 통해 진정한 기독교 군주로서 권위를 세울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헨리가 기독교 군주로서 스스로 자리매김하는 순간은 그의 정치적 권위가 최종적으로 소멸되는 때이기도 하다. 3부에서 이미 군주로서 입지를 상실한 헨리는 리처드에 의해 암살당하면서 영국의 통치권을 잃어버리고 후계 또한 존재하지 않는 최후의 랭카스터 군주로 숨을 거두기 때문이다. 헨리의 개인적 신앙심과 타인의 정신적 갱생을 도와주는 그의 자비로운 태도는 백성의 영적 수호자로서 이상적인 군주의 모습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헨리의 성격과

분리될 수 없는 정치적 무능함은 그를 세속 군주로서 크게 실패하도록 만든다. 즉, 기독교 군주로서 헨리의 권위는 곧바로 정치적 권위로 번역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셰익스피어의 『헨리 6세』 삼부작은 기독교 군주에 대항하고 급기야 반란을 일으키는 야심만만한 귀족들의 아귀다툼이 가져오는 폐해를 극화하면서 군주에 대한 복종의 정당성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헨리 6세의 통치가 지니는 성격과 특징을 다양한 각도에서 비춤으로써 현실 정치의 법칙과 유리된 기독교 군주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낸다.

결론

셰익스피어는 『헨리 5세』에서 국왕이 윌리엄스(Williams)를 비롯한 병사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극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삽입함으로써 기독교 군주를 표방하는 헨리의 행적을 무조건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와 영혼의 구원 등의 도덕적 문제를 쟁점화한다. 역사서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이 헨리와 벌이는 논쟁은 역사적으로 헨리 5세가 이끌었던 영광스러운 승리를 전쟁 그 자체의 동기와 대의에서부터 다시 점검하도록 만들고 기독교 군주의 이상이 군주의 세속적 지배력의 상승 욕구와 충돌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헨리 6세』 삼부작은 기독교 군주로서 헨리 6세가 권위를 획득하는 과정을 그리지만 동시에 그가 표방하는 경건함(piety)이 개인적 신실함과 정치적 무능이 분리 불가능하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라는 점을 밝히고 도덕적으로 선한 의지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성공적인 정치적 권위로 치환되지 않고 또한 좋은 통치로 이어지지 않음도 보여준다. 헨리 6세는 기독교 군주가 처한 문제, 즉 왕국의 정치적 그리고 정신적 수호자로서 군주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난제를 몸소 보여주는 인물이 된다. 헨리의 개인적 신앙심과 타인의 정신적 갱생을 도와주는 그의 자비로운 태도는 백성의 영적 수호자로서 이상적인 군주의 모습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지만, 정치적 무능함은 그를 세속 군주로서 크게 실패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셰익스피어는 17세기에 이르러서도 역사극이 아닌 다른 장르를 통해 정신적 수호자로서 기독교 군주가 보여주는, 혹은 보여주어야 하는 통치 방식에 대한 고민을 이어간다. 예컨대 『자에는 자로』(*Measure for Measure*)에서 그는 백성들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정신적으로 교화함으로써 국가의 도덕적 질서를 바로잡고자 하는 수도사-왕(priest-king)을 내세워서 다시 한 번 기독교 군주의 초상을 탐구한다. 튜더 시대의 군주들과 비교하여 왕권신수설을 더욱 적극적

으로 옹호하고 자신을 절대군주로 내세우는 데 주저함이 없었던 제임스(James) 1세 시기에 집필된 이 작품은 본 논문에서 다른 작품들의 주제의식을 이어나가며 기독교 군주의 권한과 통치에 대한 고민을 더욱 심화시킨다. 『헨리 5세』는 엘리자베스 시기의 영국이 구교 국가들과 전쟁을 통해 대결해야 했던 역사적 맥락 속에서 군주가 백성을 물리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기독교 군주의 권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쟁점화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자에는 자로』에서 셰익스피어는 성적 도덕(sexual morality)이라는 일견 ‘사적’인 문제가 국가적 차원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핵심적으로 통제되어야 할 대상이 된 공동체를 제시한다. 비엔나의 통치자인 공작(Duke)은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의 영혼을 다스리고 교화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위임받았음을 내세우면서 기독교적 도덕의 회복을 정치 질서의 회복과 동일시한다. 신도 개인의 영혼의 치유자인 수도사로 변장하는 공작은 헨리 5세처럼 그의 권위를 이용해 백성의 복종을 이끌어내는 것을 넘어서서 백성 각자의 영혼의 상태까지도 관통해서 알고 하며 이를 교화함으로써 ‘올바른’ 통치를 실현시키고자 한다. 셰익스피어는 이 작품에서 과연 국가의 통치자가 종교적 권위를 발판 삼아 개인의 영혼을 지배하는 것이 백성 각자 및 공동체의 차원에서 적절한 것인지를 따진다. 이처럼 목사(pastor) 혹은 왕국의 정신적 수호자라는 기독교 군주의 이념이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넘어서 일상적인 통치 전반까지 확장된 상황을 다루는 『자에는 자로』를 이전의 역사극과 비교해보면 튜더 시대를 지나 스튜어트 시대에 이르러 기독교 군주의 이데올로기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았다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의 균열이 더욱 극심해지고 가시화되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다른 셰익스피어의 역사극들은 집필 당시였던 튜더 왕정의 이념적 위기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가까운 미래에 그 위기가 심화되는 것 또한 예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인 용 문 헌

일차문헌

Elyot, Thomas. *The Book Named the Governor*. London: Dent, 1966.

Print.

Erasmus, Desiderius. 『격언집』. 김남우 역. 서울: 부북스, 2014. 인쇄자

료.

---. *The Education of a Christian Prince*. Ed. Lisa Jardine. Trans. Lisa

Jardine, Neill M. Cheshire, and Michael John Heath. New York:

Cambridge UP, 1997. Print.

An Homily against Disobedience and Willful Rebellion. London: Gilbert

and Rivington, 1837. Print.

Machiavelli, Niccolò. *The Prince*. Ed. George Bull. London: Penguin,

2003. Print.

Shakespeare, William. *Henry IV, Part 2*. Ed. John Dover Wilson. New

York: Cambridge UP, 2009. Print.

---. *Henry V*. Ed. Andrew Gurr. New York: Cambridge UP, 2005. Print.

---. *Henry VI, Part 1*. Ed. Michael Taylor. New York: Oxford UP, 2008.

Print.

---. *Henry VI, Part 2*. Ed. Roger Warren. New York: Oxford UP, 2008.

Print.

---. *Henry VI*, Part 3. Ed. Randall Martin. New York: Oxford UP, 2008.

Print.

---. *King John*. Ed. L. A. Beaurline. New York: Cambridge UP, 1990. Print.

이차문헌

이종숙. 「종교개혁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르네상스 연극: 반(反)스페인주

의, Shakespeare, 그리고 Calderón」. 『인문논총』 45

(2001): 67-118. Print.

---. 「*Henry V*와 Shakespeare의 민중적 관중/편집자들: 서지학/원문비

평의 새로운 방향을 위하여」. *Shakespeare Review* 23 (1993):

209-47. Print.

Bullough, Geoffrey. Ed. *Narrative and Dramatic Sources of Shakespeare*

Vol. III: Earlier English History Plays. London: Routledge, 1966.

Print.

Chavura, Stephen A. *Tudor Protestant Political Thought, 1547-1603*.

Leiden: Brill, 2011. Print.

Clough, C. H. "Erasmus and the Pursuit of English Royal Patronage in

1517 and 1518." *Erasmus of Rotterdam Society Yearbook* 1 (1981):

126-40. Print.

- Doran, Susan. "Elizabeth I: An Old Testament King." Ed. Alice Hunt and Anna Whitelock. *Tudor Queenship: The Reigns of Mary and Elizabeth*.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2013. 95-110. Print.
- Elton, G. R. "The Divine Right of Kings." *Studies in Tudor and Stuart Politics and Government: Vol 2*. Cambridge: Cambridge UP, 1974. 193-214. Print.
- . *The Tudor Constitution: Documentary and Commentary*. New York: Cambridge UP, 1995. Print.
- Guy, John. "The Henrician Age." *The Varieties of British Political Thought, 1500-1800*. Ed. J. G. A. Pocock. New York: Cambridge UP, 1993. 13-46. Print.
- Hattaway, Michael. "Blood Is Their Argument: Men of War and Soldiers in Shakespeare and Others." Ed. Anthony Fletcher and Peter Roberts. *Religion, Culture and Society in Early Modern Britain: Essays in Honour of Patrick Collinson*. New York: Cambridge UP, 1994. 84-101. Print.
- Herman, Peter C. "'O, 'tis a gallant king': Shakespeare's Henry V and the Crisis of the 1590s." Ed. Dale Hoak. *Tudor Political Culture*. New York: Cambridge UP, 1995. 205-25. Print.
- King, John N. "The Royal Image, 1535-1603." Ed. Dale Hoak. *Tudor Political Culture*. New York: Cambridge UP, 1995. 104-32. Print.

Marx, Steven. *Shakespeare and the Bible*. New York: Oxford UP, 2000. Print.

McKenna, John. W. "How God Became an Englishman." Ed. Delloyd J. Guth and John W. McKenna. *Tudor Rule and Revolution: Essays for G. R. Elton from His American Friends*. Cambridge: Cambridge UP, 1982. 25-43. Print.

---. "Piety and Propaganda: The Cult of King Henry VI." Ed. Beryl Rowland. *Chaucer and Middle English Studies in Honour of Rossell Hope Robbins*. Kent, Ohio: Kent State UP, 1974. 72-88. Print.

Meron, Theodor. *Bloody Constraint: War and Chivalry in Shakespeare*. New York: Oxford UP, 1998. Print.

Miola, Robert S. Ed. *Early Modern Catholicism: An Anthology of Primary Sources*. New York: Oxford UP, 2007. Print.

Montrose, Louis. *The Subject of Elizabeth: Authority, Gender, and Representation*. Chicago: U of Chicago P, 2006. Print.

Parvini, Neema. *Shakespeare's History Plays: Rethinking Historicism*. New York: Oxford UP, 2012. Print.

Riccomini, Donald R. "Governance and the Warrior Ethic in *Macbeth* and *Henry V*." *Upstart Crow: A Shakespeare Journal*, 2011 30: 42-66.

- Scarisbrick, J. J. *Henry VIII*.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68. Print.
- Skinner, Quentin. *The Foundations of Modern Political Thought: Vol 1. The Renaissance*. Cambridge: Cambridge UP, 1979. Print.
- Sommerville, J. P. *Politics and Ideology in England, 1603-1640*. New York: Longman, 1989. Print.
- Sturdy, David J. "The Royal Touch in England." Ed. Heinz Duchhardt, Richard A. Jackson, and David J. Sturdy. *European Monarchy: Its Evolution and Practice from Roman Antiquity to Modern Times*. Stuttgart: Franz Steiner Verlag, 1992. 171-84. Print.
- Womersley, David. *Divinity and State*. New York: Oxford UP, 2010. Print.
- Woolf, D. R. "The Power of the Past: History, Ritual and Political Authority in Tudor England." Ed. Paul A. Fideler and T. F. Mayer. *Political Thought and the Tudor Commonwealth: Deep Structure, Discourse and Disguise*. 19-50. Print.

Abstract

Shakespeare's 'Pious' Princes: *Henry V and Henry VI*

Dong-Wook Kwon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fter the Reformation, the English monarch became the supreme head of the state and the church, who as “the defender of the true faith” had the obligation of administering the political security of the realm and the spiritual well-being of his subjects. Accordingly, discourses upon the rights and the duties of the Christian prince were produced and circulated by the royal court, reformers, and humanists. In his history plays, Shakespeare explores the possibility of the union of political and religious authority within Christian kingship. In *Henry V*, he not only represents how Henry, God’s glorious warrior, becomes a successful ruler with his piety and extraordinary political prowess, but illustrates the limit of

Henry's Christian kingship. Even though Henry as God's vicar attempts to elicit his subjects' obedience and mobilize them to the war, its suspicious moral cause evokes doubt that Henry's rule does not accord with God's will. Henry justifies himself by claiming that he is only responsible to God and thus no earthly authority could judge his conduct. But his argument with his subjects over the moral responsibility of a Christian prince reveals the basic yet significant truth that Henry the king is a potential sinner in front of God and not exempt from the Last Judgment. Meanwhile, Shakespeare's *Henry VI* traces how its eponymous character transforms himself into a martyr-king, who dies in disorderly England where her nobles recklessly pursue their self-interest, exposing the moral anomie with his death. Politically impotent, Henry VI hardly secures worldly authority, but acquires the authority of a Christian prince as he identifies himself with England and symbolically bears her suffering caused by the brutal civil war. At the same time, however, his death and consequential annihilation of Lancastrian dynasty testifies to the fact that a king's moral authority is not directly translatable to his political authority. This inquiry into the ideology of Christian kingship recurs during Shakespeare's subsequent career. In *Measure for Measure*, written after James I ascended to the throne, he interrogates the relevancy of the Christian monarch's meddling with and domination of his subjects' souls in the name of protecting social order. In this sense,

Shakespeare's history plays prefigure the ensuing ideological crisis of English kingship in the 17th century.

Keywords: Shakespeare, *Henry V*, *Henry VI*, Reformation, Christian Prince, Divine Rights of Kings, Tudor Kingship

Student Number: 2013-20015